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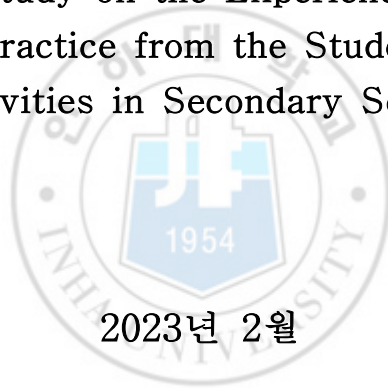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Practice from the Student Autonomy  
Activities in Secondary School



2023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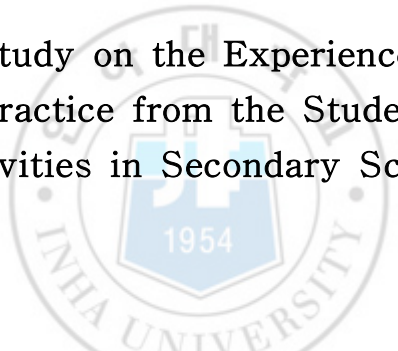
다문화교육학과

김요섭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Practice from the Student Autonomy  
Activities in Secondary School

The seal of Inha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central shield with a cross and the year '1954' below it. The shield is surrounded by a ring containing the text 'INHA UNIVERSITY'.

2023년 2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김요섭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2년 12월



주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자치활동 참여 과정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자치를 둘러싼 연구참여자의 인식과 행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중등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며 둘째는 ‘학생자치활동 참여 과정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I지역의 학교, 교육청 등에서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등학생 1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질적 사례연구를 위한 다양한 현장 텍스트를 살펴보았는데, 대표적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신의 활동을 직접 기록하여 만든 173쪽 분량의 자가출판물이 있다. 또한 반 구조화된 사전질문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그룹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1인당 2-3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 문제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 민주시민성과 다양한 시민성 담론, 학생자치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민주시민성이란 민주시민의 자질로 설명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성의 논의는 다문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시민성 논의로 한층 두터워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성 논의를 크게 자유주의적 시민성,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큰 흐름 속에서 전개하였다. 먼저 자유주의적 시민성의 관점에서 자율성에 관한 논의를,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적 시민성의 관점에서 공공성과 연대성을 보다 깊이 탐색하였다. 또한 두 시민성의 상호 보완과 조화, 정치적인 바른 판단, 다문화 시대의 세계시민성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학생자치와 관련하여서는 중등학생의 특성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자치라는 구조 속에서의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학생자치, 학생자치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비판이론과 주체성, 프락시스의 관점에서 민주시민성 실천으로의 자치활동을 논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렌즈를 토대로,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의 양상을 발견하였다. 중등학생들의 자치활동 경험은 크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 시민성 실천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 학교를 변화시키는 학교 교육과정 참여 활동, 사회를 바꾸는 학교 밖 참여 활동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교내 학생 토론회, 공동체 비전 세우기, 학교장과의 간담회, 대의원회 및 교내 위원회, 학교 밖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행사와 캠페인 차원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 각종 캠페인, 학교 축제, 즐거움과 소통의 장,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주도형 수업, 학생 생활규정 개정, 학교 급식,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 이행 등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단위학교를 넘어 학교 간 연합활동, 사회참여활동, 자치법규(조례) 제정, 세계를 품는 활동 경험을 하며 마을과 사회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실천 경험의 의미를 민주시민성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크게 자율성과 주체성 영역, 공공성 영역, 연대성 영역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자율성과 주체성 영역에서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 보장, 자기결정권 행사, 학교에서 주체로 자리매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취,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와 무게를 짊어짐,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 속에 이루어지는 성

숙이라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공공성 영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또래 학생들의 대변인으로 학교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공론장을 만들고 참여하며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태도를 기르고, 민주적 공동체를 만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연대성 영역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심과 이타심을 길렀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 존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학생만이 아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타 주체들과의 공동 주도성 발휘를 통해 이루어졌다. 끝으로 자치활동 경험에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함양하고, 다문화사회를 이루어가는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지역·국가 수준 교육과정 단위에서 보다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 보장,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자치활동 경험 유형별 학생의 체계적 참여 기회 보장 및 새로운 영역의 학생 참여 방법 탐색, 학생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플랫폼과 적극적 교육, 학생자치를 위한 법적 기반의 강화,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 교육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을 향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생 의견 청취 제도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v
표 목 차 .....	viii
그림 목차 .....	ix
부록 목차 .....	x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내용 .....	6
3. 연구 동향 .....	8
4. 연구 동기 .....	14
<b>II. 이론적 논의</b> .....	20
1. 다문화사회에서의 시민성 논의 .....	20
1.1. 민주시민성에서 다양한 시민성으로의 확장 .....	20
1.2. 자유주의적 시민성 .....	23
1.3.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적 시민성 .....	25
2. 중등학생과 학생자치 .....	31
2.1. 중등학생의 특성 .....	31
2.2.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학생자치 .....	32
2.3. 교육과정과 법·제도에서의 학생자치 .....	39



3. 학생자치와 민주시민성 실천 .....	47
3.1. 비판이론과 주체성의 관점에서 본 민주시민성 .....	47
3.2. 민주시민성 실천으로의 자치활동 .....	50
4. 소결 .....	52
<b>Ⅲ. 연구 방법 .....</b>	<b>55</b>
1. 질적 사례연구 .....	55
2. 연구 과정과 연구참여자 .....	59
2.1. 연구 과정과 연구참여자 선정 .....	59
2.2. 연구참여자 소개 .....	63
3. 자료 수집 및 분석 .....	72
3.1. 자료 수집 .....	72
3.2. 자료 분석 .....	79
4.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	81
4.1. 연구의 신뢰성 .....	81
4.2. 윤리적 고려 .....	82
<b>Ⅳ. 중등학생이 참여한 학생자치활동의 양상 .....</b>	<b>84</b>
1.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 .....	85
1.1. 교내 학생 토론회 .....	85
1.2. 공동체 비전 세우기 .....	87
1.3. 학교장과의 간담회 .....	88
1.4. 대의원회 및 교내 위원회 .....	89
1.5. 학교 밖 정책 토론회 .....	91

2. 시민성 실천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 .....	94
2.1. 시민의 날 행사 .....	94
2.2. 캠페인 활동 .....	96
2.3. 학교 축제 .....	98
2.4. 다양한 즐거움과 소통의 장 .....	99
2.5. 리더십 캠프 .....	101
3. 학교를 변화시키는 학교 교육과정 참여 활동 .....	103
3.1. 학생주도형 수업 .....	103
3.2. 학생 생활규정 개정 .....	105
3.3. 학교 급식 참여 .....	107
3.4.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 이행 .....	110
4. 사회를 바꾸는 학교 밖 참여활동 .....	116
4.1. 학교 간 연합활동 .....	116
4.2. 사회참여활동 .....	118
4.3. 자치법규(조례) 제정 .....	122
4.4. 세계를 품는 참여 .....	123
<b>V. 학생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의미</b> .....	125
1. 개요 .....	125
2. 자율성과 주체성 영역 .....	129
2.1. 자유와 권리, 자기결정권의 보장 .....	129
2.2. 교육활동에서 주체적, 주도적 참여 .....	134
2.3. 책임 의식 함양 .....	139

3. 공공성 영역 .....	143
3.1. 공공의 이익 추구 .....	143
3.2. 공론장 형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	148
4. 연대성 영역 .....	151
4.1. 존중과 협력 중시 .....	151
4.2. 공동체성 구축 .....	157
5. 소결 .....	160
<b>VI. 결론</b> .....	<b>161</b>
1. 요약 .....	161
2. 논의 및 제언 .....	163
참고문헌 .....	170
ABSTRACT .....	185
부록 .....	189



## 표 목차

<표 III-1> 은하수 학교 .....	61
<표 III-2> 연구참여자 .....	63
<표 III-3> 면담 질문지 구성 .....	76
<표 IV-1> 중등학생이 참여한 학생자치활동의 양상 .....	84
<표 IV-2> OO고등학교 학생회 부서 조직 .....	111
<표 IV-3>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이행비 정책 변화 .....	113
<표 V-1> 학생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의미	128
<표 V-2> 2020년 은하수 프로젝트 .....	130
<표 V-3> 2021년 은하수 프로젝트 .....	131



## 그림 목차

[그림 III-1] 연구참여자의 자가출판물 .....	75
[그림 IV-1] 우리학교 학생 100인 토론회 .....	86
[그림 IV-2] 기후위기 정책 토론회 발제 자료 .....	93
[그림 IV-3] 시민의 날 .....	95
[그림 IV-4] 청소년 자살예방 토크콘서트 포스터 .....	98
[그림 IV-5] 학생주도형 수업을 위한 논의 .....	105
[그림 IV-6]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 .....	107
[그림 IV-7] 연구참여자 K의 학교에서 학생회장 공약이행으로 설치된 학급 옷걸이 .....	114
[그림 IV-8] 학생자치회 선거 톨아보기 영상 .....	115
[그림 IV-9]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 .....	119

##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	189
<부록 2> 면담 질문지 .....	19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2조, 2022). 대한민국 교육의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에릭 리우 & 닉 하나우어(Eric Liu & Nick Hanauer, 2011)는 민주주의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가꾸려면 비옥한 토양과 적당한 일조량, 그리고 물과 같은 제대로 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뿌려진 씨앗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비료를 주며 양분을 공급하려는 애정이 담긴 의지와 정원에 있어서는 안 될 잡초에 대한 단호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정원과 정원사에 비유하며 훌륭한 정원사가 정원에 대한 책무성을 갖는 것처럼,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 같은 주장은 시민은 갑자기 탄생하는 존재가 아니며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교육부(2018)는 조직 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지식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가치와 태도 및 참여와 실천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중요 기제로 보았다. 특히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5대 과제<sup>1)</sup> 중 하나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학교

---

1)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 구축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지향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주사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치와 참여의 주체가 되는 방향을 추구한다.

김영순(2021)은 나아가 시민이 특정 국가나 영토에 간헐 수 없음을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의 논의를 세계시민성의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김영순(2018)은 능동적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가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추구하는 시민으로서 참여, 협동,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고 생동하며, 참여하고, 나누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최근 세계교육의 흐름도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생의 참여와 주체성을 말하고 있다.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프로젝트(OECD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취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인 2030년 무렵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핵심역량으로 교육·학습의 능동적 역할자로서의 학생주체(Student Agency)를 강조하고 있다(김은영, 2018).

근래의 정치적인 상황들도 위와 같은 흐름 속에서 계속 진보하고 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7년 23세, 1948년 21세, 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변화해 왔는데, 청소년 모임 ‘낮추자 운동’의 선거연령 하향 운동,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 연대’의 국회 청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캠페인 등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확대 노력이 그 배경에 있다. 마침내 2021년 12월에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여야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공직 선거 출마 권한까지 학생의 권리로 주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1988)는 국민 주권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갖는 기본 권리인 선거권을 학교



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누리게 된 것이다. 법 개정 이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의 대변인이나 대통령 후보자 선거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을 맡으며 학생의 정치참여 폭도 더욱 넓어졌다.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제21대 국회에서는 학생의 권리 신장을 위한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는 시민인 학생이 주권자로서 학교 안팎의 일에 권한을 가지고 참여, 선택, 결정하는 일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학생자치 활성화와 중요한 연결 고리를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을 4대 정책 목표<sup>2)</sup>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특히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회와 학급 회의를 통한 참여 기회 확대, 학생자치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 제안 등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주목한다(관계부처합동, 2018).

다시 말하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과업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 타인을 존중하는 시민적 관용, 공동체를 위한 참여와 실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토론 및 연대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학교와 사회에서 드러난 성별과 세대 간 갈등, 지역과 이념의 대립, 혐오와 폭력 문화 등은 민주시민성의 결여와 관련이 깊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대화와 설득, 타협과 절충, 다수의 합의와 소수자 존중과 같은 민주적 생활 태도를 함양하는 효과

---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

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사회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지니며 시의적절하다. 무엇보다 학생자치 관련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그간 교사, 성인 중심의 연구를 벗어나 학생자치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고, 그들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경험은 단순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생긴 변화를 결과라는 되돌이 물음으로 의식적으로 관련지어 우리 내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듯 진보적인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경험을 통해 더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어른의 사회가 현재 어른의 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John Dewey, 1916).

이처럼 학생자치에 관한 경험은 학생들의 고민, 앎,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과정과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정의 방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등학생 시기는 초등학생 시기에 비해 학교 단위 학생자치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또래 지향적이며, 보호자의 동반 없이도 자율적으로 학교 안팎의 자치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중등학생이 개인 혹은 집단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자치활동 경험을 살펴보고, 유형화하여 어떤 양상으로 자치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 분석해봄으로써 자치활동의 구조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집중하고 보완해야 할 영역들을 조망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나아가 자치활동의 참여 경험이 단순한 개인의 만족이나 활동의 실천을 넘어 어떠한 시민성 관점에서 실천되고, 함양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한다면 학생자치활동의 현상 이해를 넘어 시민성 실천 차원에서의 가치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중등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참여하는 학생자

치활동의 양상을 탐색하고, 학생자치활동 참여 과정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자치를 둘러싼 연구참여자의 인식과 행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및 내용

김영순 외(2018)는 질적연구의 바탕이 되는 주요한 생각을 찾기 위해 참여자들로부터 문제나 이슈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에릭슨은 연구 문제 설정 기준 수립 시, 사건의 일반적인 특성과 전체적인 상태보다는 사건 발생의 세부적인 구조에 관심을 가질 때, 특정한 사건(event)에서 개별 행위자들의 의미-관점을 알고자 할 때(김영천, 2012: 200) 그 기준을 세우기 용이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생의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실천 과정을 집중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자치의 세부 구조와 자치활동의 경험 속에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 경험에 담긴 의미와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중등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학생자치활동 참여 과정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와 관련한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 및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동향과 동기를 서술하였다.

II 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성과 학생자치 관련 이론적 논의를 다루며 학생자치의 철학적, 교육적 배경을 탐색하였다. 특히 민주시민성의 개념과 민주시민성 논의가 다양한 시민성으로 확대되는 흐름, 학생자치를 실천하는 중등학생의 특성과 학생자치 논의의 기반이 되는 학교자치,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법적 논의 등을 전개

하였다.

III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치활동 경험의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연구 전 과정의 흐름,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 윤리,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서술하였다.

IV장에서는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중등학생의 학생자치활동 경험의 양상을 연구참여자의 기록물과 그룹별 심층면담, 다양한 보조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그 양상을 기술하였다.

V장에서는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의 참여 과정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자치활동을 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생각과 느낌의 집약을 통해 그 의미를 깊게 탐색한 것이다.

끝으로 VI장에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제언을 담았다.

### 3.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2007년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인 주민의 직접 선거로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다양한 교육 담론들이 생성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등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러한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치와 참여가 교육 현장에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학생자치활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양적연구(이중섭, 모상현, 2012; 정현주 외, 2013; 이경윤, 2017; 김위정, 2016; 황여정, 2018; 민수빈 외, 2019; 박희진, 2019)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중섭 외(2012)는 학생의 자치조직으로서 학생회의 활동이 어떤 경로를 매개하여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은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주 외(2013)는 중학생 예술동아리 자치활동 수혜자들 대상 연구결과,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와 인성 변화 효과가 나타났다. 이경윤(2017)은 전교어린이회 선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위정(2016)은 학생회 참여 여부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황여정(2018)은 학생자치활동이 중·고등학생의 학교교육 효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학생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수록 그 효과는 제고되고 있었다. 이에 학교 교육 효용성 증진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내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민수빈 외(2019)는 중학교 학

생의 진로, 독서, 봉사, 자치, 동아리 활동 경험이 다양할수록 시민 의식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밝히며 중학생의 참여 활동 경험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박희진(2019)은 학급자치활동이 시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전 연구의 단편적인 효과 분석을 넘어 자치활동의 적극적 참여, 의결사항 반영 여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질적인 측면이 선행될 때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급자치활동이 시민교육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질적 개선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의 시민성, 정치효능감 등 성장과 발달에 유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 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안에 담긴 학생들의 참여 경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의 교육과정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조영남, 2017; 정구영, 김대식, 2020)가 실시되고 있었다. 조영남(2017)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인 자율에 관한 연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탐구하였다. 특히 자율활동 내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으며 1차 교육과정 때부터 이어져 온 자율활동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은 크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나뉜다. 조영남(2017)의 연구가 자율활동 교육과정의 큰 틀을 살펴보는 데 머물렀다면, 정구영 외(2020)는 자율활동 안에서의 세부 영역인 자치활동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정구영 외(2020)는 자율활동 중 학생자치활동의 변천 과정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그 변천 과정을 규율의 내면화 단계, 공동체 의식 강화 단계, 학생 자율권 주장 단계, 참여를 통한 시민역량 강화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학생의 자치활동이 국가교육과정 체제 아래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사회

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학생의 자치활동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이기에 자치활동 시행의 근거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연구주제 선정의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지난 교육과정 상의 논의와 더불어 최근 개정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자치활동 관련 사항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자치 정책 검증 및 개선 관련 연구(오필우 외, 2006; 정건희 외, 2010; 장기덕, 박재황, 2011; 이충민, 김원진, 2017; 정상우, 강은영, 2019; 이광원, 2019)가 있었다. 오필우 외(2006)는 학교에서 학생 임원 선출 시 서면 투표방식의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휴대폰, PDA, PC 등을 활용한 유무선 연동의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선거는 학생자치의 주요 활동이기에 선거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는 자치활동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당시로써는 다양한 투표 방식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 상당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으며 현재는 교육현장에서 종이 투표, 휴대폰, PC 등을 활용한 투표 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건희 외(2010)는 청소년자치활동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영역을 범주화하는 등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 관련 활동 개선 정책을 제안하였다. 학교 안에서의 자치활동을 넘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살펴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장기덕 외(2011)는 학급 회의에서 의제를 원하는 수준으로 도달하게 하기 위해 글래서(Glasser)의 리드형 관리에 기초한 초등학교 학급 회의 모형 개발 절차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충민 외(2017)는 학생자치활동의 핵심인 학생 선거 실태를 확인하고, 선거운동 방법과 규정의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상우 외(2019)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 및 조례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규범적 의의를 살펴보면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모든 학생이 쉽게 접근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광원(2019)은 초등학교



생의 사회참여 실천방안으로 학생자치활동에 주목하며 학생자치활동이 공동체 문제 해결과 시민성 형성, 사회참여활동 연습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련의 연구들은 학생자치 선거, 회의 방식 등의 기능적인 개선 방안과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다만 이는 부분적인 요소의 개선 사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자치와 관련한 종합적 개선 방안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자치활동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학생자치에 참여한 교사 등의 경험과 인식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임성철, 2013; 하송아, 박세훈, 2020; 이도영, 2019; 허은정, 윤지영, 2019; 이혜진, 2020; 황미영, 2020)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임성철(2013)은 학생주도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하며 학생회 임원들과 학교스포츠클럽 도우미 학생들이 대회 종목 선정, 홍보, 진행, 심판, 기록원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체육교사의 경험과 감정을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학생자치활동이 비교과 활동을 넘어 교과교육 내에서 직접적으로 그 가치를 담아 실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송아 외(2020)는 내러티브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중학교 교사의 학생자치 지도 경험과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도영(2019)은 자율활동을 중심으로 중학생의 경험과 인식을 탐구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자치활동, 예방 교육, 현장체험학습, 학교 행사라는 네 가지 범주를 도출하고 이 중 자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학교 문화 형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교육과정 체계상 자치활동의 상위 범주인 자율활동을 중심으로 학생의 경험을 탐색하였는데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자치활동의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허은정 외(2019)는 학생의 주체적 참여는 학교, 학부모, 교사 등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가정으로 그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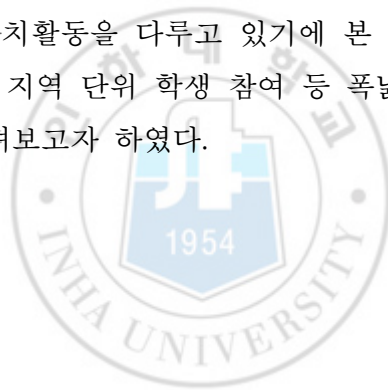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 민주적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학교 정책 도입,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학교장 의지가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혜진(2020)은 지역사회협력 청소년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 청소년 대상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배움 활동을 활동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학생의 자치활동의 공간적 배경은 학교 안을 넘어서 학교 밖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자치활동 경험을 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주기도 한다. 황미영(2020)은 중고등학생의 학급임원 경험 유형과 특성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학생자치로 나아가지 못한 학급 봉사자, 수동적인 교사 보조자, 사회적 인정 지향 지도자, 참여 과정에서 좌절의 경험을 가진 학급 대표자, 신뢰와 정치 참여 의지를 함양한 학생 대표자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자치를 지도하는 교사의 경험, 자치활동을 포함하는 상위 범주의 자율활동 관련 학생의 경험, 학교 밖 자치배움터에서의 청소년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자치활동 경험, 특히 단순 경험 서술을 넘어 시민성의 관점을 기반으로 보다 심층적인 실천 경험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인 학생자치법정 연구(김주선, 2009; 정순원, 2011; 이대성, 2012; 허종렬 외, 2012; 이지혜, 2017)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학생자치법정은 명시적으로 사업명에 학생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내 사법체계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본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특정 부처의 정책사업 수행의 성격이 강하고, 학교 현장의 호응이나 참여가 높지 않다는 한계를 보인다.

그리고 학생자치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국내 학술논문과 정책연구에 편중되어 있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해당 주제를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

다. 학생자치 관련 박사논문(김주선, 2009; 신수연, 2019; 장기덕, 2011; 유혜영, 2020)의 경우, 학생자치법정이나 학생자치를 둘러싼 민주적 학교문화와 관련한 연구로 학생자치와 연관된 학생의 직접적 참여 경험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은 발행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연구가 다수 발견되었지만, 중등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직접적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이에 실제 학생자치에 참여하는 중등학생들의 직접적인 실천 경험을 연구해 봄으로써 교사, 연구자가 아닌 학생 입장에서 인식되는 학생자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나아가 선행 연구들은 주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학급회, 학생자치회 등 학교 내에서의 자치활동을 다루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을 포함한 교육청 단위, 지역 단위 학생 참여 등 폭넓은 범주의 학생 참여 경험을 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4. 연구 동기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구자의 삶의 궤적 안에서 연구참여자 D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한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를 싫어했다면, 반대로 학생자치를 통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정말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D)

김영순 외(2018)는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주요한 연구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밝힌다. 다시 말해 질적연구자가 자신의 연구행위 전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동기와의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에 본 연구자가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수행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먼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중등학교 시절 학생회 활동 경험을 떠올려본다. 연구자가 학창 시절이었던 1990년대는 현재와 같은 민주시민성의 관점에서 학생자치를 바라보던 시기가 아니었으며 당시는 학생이 교사의 일을 대신하는 수준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졌다. 학급 임원이 되면 관례적으로 학교에 물품을 기증하고, 교사 등 성인의 요구를 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을 뿐, 학생들 사이에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는 자치활동은 드물었다.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학생자치활동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어렴풋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모습과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시민성 실천 차원의 학생자치는

2010년 전후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과 더불어 전개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등의 정책 도입과 맥을 같이 한다. 시간이 흘러 연구자는 일선 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I지역 혁신학교에 근무하며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 연구주제와 본격적으로 관련을 맺기 시작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혁신학교에서는 학교의 운영원리 중 하나로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강조하였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 학생자치회가 학교 운영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중시되었다. 당시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학급회장 제도를 대체하는 학생자치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하였다. 기존 학급회장 제도는 인기투표 방식의 선출 활동만 있을 뿐, 학생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지 못했다. 이에 새롭게 조직한 학생자치위원회에서는 희망 학생 누구나 학생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매주 점심시간마다 모여 학교의 좋은 점, 학교에 바라는 점, 개선할 점 등을 토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였다. 교외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국회에 방문하여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기도 하고,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행사에 학생 대표와 참석하여 학생이 제안하는 입법 사항 등 관련 의견 개진의 장에 동참하였다.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 차원의 학생자치회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 및 평가 과정에서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업 방법, 체험학습 장소 선정 등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다. 학생들과 함께 마을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이 원하는 체험처와 수업 방식 등을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실행하였다. 학생들은 교실이 아닌 실제 마을에 나가서 수업하길 원했고, 연간 약 10회 이상의 학생주도 지역사회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공동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학급과 학교를 만들기 위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자치실을 새롭게 구축하고, 학생 회의 및 휴게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나아가 학기 말에 실시되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회 때 학생 대표가 교원과 학부모 앞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등 학생이 교육 3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의 「학교 자치」 도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학생자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2019년에는 교육부에 파견근무를 하며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 청소년단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중앙정부에 근무하며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학생자치의 의미, 법적인 흐름과 쟁점,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생자치 정책과 조례, 실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관계자와의 교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 시도 교육청 학생자치 업무 담당자와의 회의 및 워크숍, 학생자치 안내서 발간 및 공동사업 추진 등으로 학생자치 정책과 실행에 관여하였다.

또한 교육 분야의 구조적인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자치 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학생자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강화하였다. 이는 지방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학교로의 권한 이양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간은 I시 교육청에 파견근무를 하며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된 학생자치 업무 권한을 바탕으로 I 지역의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학급자치 지원, 학생자치 공간 지원,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지원, 학생 회의교육 운영 지원, 교육청 및 학교 단위 학생 토론회 운영 지원,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고등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 운영,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학생의 교육정책 참여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행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에는 D교육지원청의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며 초·중학교 학생 및 교사와 함께 학생자치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고, 학생시민 성장 아카데미, 교육장과 함께하는 학생시민 공감톡톡, 학생자치 지원단 등을 운영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학생자치 위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전국 최초로 온라인 학생자치 안내서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중등학생들, 학생자치 담당 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여러 정책 행사와 사업 등을 진행하였는데, 교육부에서의 경험이 법적이론적 차원이었다면, 교육청 단위에서는 보다 역동성 있는 실행조직을 운영하며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 경험 속에서 학생자치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과 성인의 생각이 다소 다른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자의 학생자치 경험이 일차적인 논문 작성 동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10년 이상 근무하며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 교원, 학생, 학부모, 직원 등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 민주주의는 필수적이라는 의식이 있었다. 학교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무너지는 많은 학교의 모습을 보았고, 교사로서의 효능감 또한 낮아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 아래 학교자치,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와 관련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논문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는 2018년 노무현재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흥사단 등의 시민교육 관계자와 학교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만나 심층면담 실시 과정을 옆에

서 보조하며 연구 과정을 익힌 것이 해당 주제 연구의 첫 실전 경험이  
었다.

2020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교육자치 시대 학교자치 강화 방안」  
연구, 2021년 인천교육정책연구소의 「인천 학생 사회참여 실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코로나19 이후 학교자치 강화 방안」 연구에 공  
동연구자로 참여하여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학생자치 영역을 좀 더 고민  
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8-2020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 발간한  
「학교자치」, 「학교자치2」, 「학생자치, 학생주권시대를 열다」의 공  
동저자로, I시 교육청 중학교 인정교과서인 「시민과 사회참여」, 고등  
학교 인정교과서인 「학생자치와 사회참여」의 공동저자로 활동하며  
학생자치 단원을 집필하였다.

연구자의 개인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학교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적 요  
구도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먼저 자치와 분권이라는 사회적인 흐름 속  
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진행되었다. 학교 교육 측면에서도 각 지역의 특색있는 교육을 위한 지  
방교육자치가 본격화된 지 30년이 넘었고,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도 10년이 넘는 시기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교육민주주  
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가 제시되었고, 세부 과제로 단위학교의 자치  
강화가 강조되면서 학교 민주주의 속에서의 학생자치가 주목받게 되었  
다.

일련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진보 속에서 학생자치를 실천하  
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담아보고, 학교 안팎에서 어떤 자치의  
경험이 있었는지, 학생들이 겪은 기쁨, 실수, 인내, 좌절 등은 무엇인지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고 싶어졌다. 그간 학생자치와 관련한 정책,  
도서, 논문 등을 살펴보면 학생의 목소리보다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많  
이 담긴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질적연구자로서 학생자치와 관련하여  
어른들이 이해하고 있는 현상 너머 학생이 처한 실제 상황과 경험을 그



들의 목소리로 풀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교사, 성인이 생각하는 것과 학생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상이할 수 있으며 외부자 혹은 관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자치를 둘러싼 중등학생의 경험과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의견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가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로 학교 공동체가 균형있게 세워져가고, 학교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주춧돌이자 디딤돌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다문화교육학과 전공을 살려 학생자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활동을 할 때 이주 배경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중국, 러시아 등의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교육청 단위 학생참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주제가 이주 배경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다문화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성 존중과 타자 이해, 상호 문화 소통, 협동과 연대의 가치가 연구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 인간에 대한 관심, 평범한 시민을 향한 연대, 약자와의 동행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 II. 이론적 논의

### 1. 다문화사회에서의 시민성 논의

#### 1.1. 민주시민성에서 다양한 시민성으로의 확장

민주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에서 ‘democratic’ 은 demo(민중)과 cratic(지배)가, ‘citizenship’ 은 citizen(시민)과 ship(조건, 자격)이 합쳐진 말로, 용어 상으로 보면 민주 정치제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숙 외, 2020).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시민적 자질을 대체로 시민성(citizenship)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이운발, 2005).

민주시민성의 논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져 왔다. 먼저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에게 폴리스 공동체에 대한 헌신, 공공 업무 및 공동선에 대한 개인생활의 복종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었다(김현숙 외, 2020). 하지만 신분제 사회에서 해방된 시민들은 사적 권리를 추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18세기 대혁명을 계기로 부르주아 남성들이 시민적 권리를 획득한 이래로, 19-20세기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계급투쟁을 통해 시민적 자유권과 참정권을 획득하고, 그 위에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조형 외, 2007).

이러한 전통적 시민성 개념은 공민적, 정치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각 개인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정의한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공민적 권리는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 즉 자율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침해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 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는 시민권의 민주적 가능성, 즉 공공성

을 강조한다(Peter, 2008). 따라서 민주시민성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사회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의 복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며, 사회적·공공적 책무성을 인식하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심승환, 2019).

한편 20세기 후반부터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시민성의 개념 또한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세계시민성이나 다문화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Oxfam 2015: 5). 이는 민주시민성 개념이 한층 두터워진 것으로, 글로벌 시민사회가 대두되기 이전까지 민주시민성은 국민국가라는 단위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 개념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공공성과 자율성의 범위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국경을 넘어 국가 간 연합체로, 더 나아가 지구촌 수준으로 확장되면서 개념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장의선 외, 2020).

이와 같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인종, 언어, 민족의 다양화와 세분화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다문화사회에는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 배경, 특성, 사고를 가진 이들이 모여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 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김위정, 2016), 이는 민주주의의 실천 차원에서 다원주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다양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김영순, 2010).

결국 오늘날 세계사적인 시대 조류는 다문화적 소양과 간문화적 기능을 갖춘 시민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의 구성원들이 다문화 세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함은 물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하다(Banks, 2007). 다시 말해 현시대의 흐름은 다문화적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 함양을 요구(추

병완, 2010)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성은 사적 공간이나 생활세계에서 타인에게 지켜야 할 예의이기도 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관용의 마음이기도 하며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시민적 덕성이기도 하다(심성보, 2018). 이는 전통적인 민주시민성에 다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와 존중을 더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오영수, 박상은, 2019).

이렇듯 시민성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한 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서 요청된 자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더불어 현재의 시민성은 배타적 시민성에서 포용적 시민성으로, 국가에 대한 수동적 시민성에서 능동적 시민성으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김현숙 외, 2020).

일련의 시민성 논의의 다양성만큼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민성으로 볼 수 있는지도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성에 관한 접근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또는 시민적 공화주의 전통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곽준혁, 2008a). 또한 시민성 개념에 접근하는 관점과 입장은 크게 자율성과 공공성의 상대적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민성이란, 자율성과 공공성을 각각 양 끝에 두는 일종의 스펙트럼 내지 연속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장의선,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을 살펴봄에 있어 역사적, 전통적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민성,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 1.2. 자유주의적 시민성

자유는 민주, 즉 시민의 주인됨에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는 주로 서양 고대의 노예와 중세의 농노의 삶을 규정했던 주인에 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박병기, 2020: 79). 자유주의 관점에서 시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자신과 다른 타인의 결정과 실천을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조일수, 2011: 9-15). 즉 자유주의 관점에서 시민성의 핵심은 ‘자율성’이며,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위한 권리에 관심을 갖고, 시민적 의사결정을 중요시 한다(Mouffe, 1992: 71).

이러한 자율성 개념은 그리스 정치철학에서 사용된 autarchy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autarchy는 한 도시국가가 다른 도시국가로부터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Holm, Søren, 1998). 고대에는 자율의 개념이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면, 근대에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간섭받지 않는 것을 강조하였다. 먼저 개인적 자율인 autonomy는 autos(self)와 nomos(rule, law)의 결합형인 그리스어 *αὐτονομία*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 용어가 인간의 ‘내적인 고유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5세기 중반 이후였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못하다가 17-18세기에 이르러 법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칸트(Kant)에 이르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김석수, 2010). 그리하여 개인들이 각자 스스로 결정하고(self-determining), 스스로 다스리는(self-governing) 자율은 근대인들이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김석수, 2010).

또한 홉스(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로 이어지는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의 권위를 자율적인 개인들의 동의로부터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인간을 본성상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기 자신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Reath, Andrews, 1998). 이는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심사숙고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성향, 타인과 다양한 활동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Hill, 2013)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학교 안을 들여다 보면, 학생이 학교 공간에서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일에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가치를 함축하는 것이다.

칸트가 의무로서의 도덕을 설명하고 법칙을 따르는 데서 인간다움을 설명했다면, 슈타이너(Steiner)는 자유와 관련하여 인간은 누구의 종도 아니며 어떤 법칙도 따르지 않고, 강요된 모든 법칙에는 저항하며 내 마음이 기우는 곳이 곧 법이라고 선포한다(Steiner, 1894).

반면 자율을 개인의 입장만이 아닌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타자를 향한 윤리성을 강조한 레비나스(Levinas)는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조작하려는 주체의 절대화 움직임을 반대한다. 자기중심적인 주체, 자기성의 주체는 외부로 대상을 간주하며 타자의 문제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이다(서용순, 2014). 따라서 레비나스에게 주체성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주체성이 타인을 향한 책임의 주체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타자의 부름에 응답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이상은, 2018).

칸트를 비롯한 서구 철학의 전통적 관점에서 자유는 책임에 선행하는 것으로 본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자신의 자유는 타인을 향한 책임 즉 타인에 의해 방향이 잡히게 되므로, 타인의 선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존재만을 고려하는 자유의 행사는 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의 '할 수 있음', 나의 '힘'에서 나오는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부름에 '응답'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가운데 그 자유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강

영안, 2015). 이렇듯 레비나스는 개인의 힘을 행사하는 자유를 견제하는 비판의 도구로 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1.3.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적 시민성

자유주의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에 주목한다면, 공동체주의는 심의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발휘되는 시민의 덕성에 초점을 맞춘다(곽준혁, 2008b).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시민성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시민적 덕목, 공동체를 강조한다(노영란, 2002). 따라서 공동체주의 시민성은 시민의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격 함양의 정치(formative politics)에 관심을 쏟는다(김현숙 외, 2020).

이는 공동체의 이익 또는 연대를 강조하는 입장이 공동체주의로 정리된 것으로 이후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 전통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공화주의는 곧 개인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설명되어 왔다(곽준혁, 2008b). 그래서 공화주의에서는 공동체주의와 유사하게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보다 공동체를 선행하며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정체성을 갖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진희, 2003).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는 큰 틀에서는 방향을 같이 할 수 있지만, 두 개념 사이에는 긴장 관계도 존재한다. 먼저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가치관과 공동체의 가치관을 일치시키며 개인의 가치 실현은 공동체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페티(Pettit)은 신공화주의를 공동체주의와 구분하며 비지배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이는 다른 대상이 아닌 자신의 동의와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말한

다. 또한 비지배 증진의 좋은 수단으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강조하며 권력자로부터의 지배가 개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주목한다(Pettit, 2012).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공공성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공공성의 어원은 공화국(republic)의 어원이기도 한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이다. 로마는 기원전 1세기에 제정으로 바뀌기 전까지 공화정을 유지했는데, 공화국에서는 인민이 구성원 전체에 관련되는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했다. 로마에서는 ‘인민의 것(res populi)’임을 뜻하는 말이 공공성이기도 했다. 공공성이란 인민이 모여 공적인 일, 공동체의 일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뜻했다(하승우, 2014: 25).

이와 같은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폭넓은 영역과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개념 또한 다양하다. 윤수재 외(2008)는 공공성과 정부적(governmental)인 용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공공성의 핵심을 공공기관인 정부와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으로 말하며 제도적, 공식적, 법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공성은 정치적(political)인 요소를 함의하고 있는데, 정부적인 것에 비해 자연발생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과정적이고 타협과 협상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렌트(Arendt)가 인간의 의지와 고유성이 발현되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연결된다. 또한 공공성은 다수의 이익과 관련이 깊은 공익성(public interest), 가치나 체제, 제도나 시설과 관련 있는 공유성(publicly shared), 공정성(fairness), 공개성(open), 인권(human rights)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한다.

조한상(2009)은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publicus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한다. 본래 로마 시대의 publicus는 국가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가진 자유민을 의미했으며 이는 인민이 곧 국가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하지만 훗날 로마의 정치 체제가 절대군주제로 바뀌면서 황제 또는 군주가 국가라는 의미로 변질되기도 하



였으며 근래에는 이익의 주체로서의 사람들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며 공동체의 복리, 공공복리를 나타내는 말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어 öffentlich는 offen(영어의 open)과도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식 또는 접근이 가능한’, ‘실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진실한’, ‘올바른’ 등의 의미를 내포하며 라틴어 publicus와 관련을 맺게 된다. 이후 18세기 무렵 öffentlich를 기초로 Öffentlichkeit의 개념이 자리 잡으며 공공성, 사람들, 국민, 대중, 공론장 등으로 이해되었다.

한편으로 공공성은 구성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고,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일부 특정인이 아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그 속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소통과 이성적인 토론을 활발히 하는 공론장의 필요와도 연결된다. 공공성이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인 것이 필요 없다거나, 공동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도리어 개인의 자유와 의지, 이해관계를 공론의 장을 통해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제도 차원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공공성은 민주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민주주의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라고 이해할 때, 여기에는 ‘국민 전체의 뜻’,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 것’,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하는 일’ 등의 의미가 부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과 민주성은 불가분의 개념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실제로 근대적 의미의 공공성 개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발달하고 변용되어왔으며, 현실적으로도 그 실현 요건으로 민주주의를 불가결하게 동반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의견이 민주적으로 결정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거나 국민의 동의 절차를 거쳤을 때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며, 공적 권위를 부여한다(윤수재 외, 2008: 40).

아울러 하버마스(Habermas)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론장을 강조하며 공론장의 중요한 속성으로 ‘공개성의 원칙’, ‘비판적 검토와 이성적 대화’, 그리고 이를 통한 ‘공정한 의견 형성’을 제시하였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공론장이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은 정치체제이다. 듀이(Dewey)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것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부의 형식이나 정치체제 형식이 아니라 공동생활의 양식,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양식이라는 것이다(한성찬, 2019).

이와 같은 공화의 실현은 비단 아테네와 로마의 서구 문명뿐만 아니라 단군의 홍익인간, 고구려의 제천행사, 신라의 화백제도, 동학, 3.1 운동, 6월항쟁, 촛불항쟁, 코로나19 사태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구현 등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박병기, 2020).

다음으로 공공성과 더불어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연대성을 논하고자 한다. 연대성은 정치적, 사회학적, 윤리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 집단과 함께함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 집단 간의 결속이나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강수택(2016)은 이러한 연대 관념이 전근대적인 공동체 유대가 무너진 근대 초기 서구사회에서 근대적 유대를 형성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적 연대 정신은 근대 시민단체인 독립협회, 민중들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1960년 4월 혁명, 이후 군부독재를 지나 1980년대 민주화와 민권을 위한 연대투쟁,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1990년대 시민사회단체의 결성과 연대조직의 확산, 소수자 집단과의 연대 등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주의를 보완하는 연대 정책들도 추진되었다. 2000년대 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연대 실천의 증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촛불집회와 추모 집회, 연대 영역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촛불집회의 형태로 이루어진 촛불연대는 1960년대 말 미국의 반전운동 과정에서 시작된 이후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1992년 온라인 서비스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두 중학생 심미선과 신호선의 추모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2009년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추모집회,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등 많은 집회와 시위에서 촛불연대가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는 전국에서 2백만 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연대를 이루었다(강수택, 2016: 157).

교육 사상가 프레이리(Freire) 역시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 연대를 제시했다(강수택, 2019). 프레이리는 신자유주의 교육을 비판하였으며 교육이 정보의 전달이나 단순한 훈련과 같은 예금적금식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의사소통을 통한 존중, 상호 협력과 신뢰와 같은 연대의 요소들을 강조했으며 교육의 기계적 중립성 대신 실천적인 정치적, 윤리적 특성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프레이리의 연대성은 학생자치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자치는 교육의 영역 안에서 학생들이 상호 간의 존중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역동성을 지닌다. 특히 교사는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통해 학생들을 한 시민으로, 인격체로 대하며 그 의견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프레이리는 단순한 존중을 넘어 꿈과 희망과 같은 유토피아를 강조하였다. 이는 자치활동에서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학교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속한 학교,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 2. 중등학생과 학생자치

### 2.1. 중등학생의 특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등학생이라 함은 중등교육을 받는 이들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일컫는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5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관한 연령 기준은 법이나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등학생을 청소년으로 일컫는다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무엇보다 논리적인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성숙과 성장의 시기이며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하려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허상훈, 2019).

김진숙, 장연진(2017)은 S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 참여권의 측면에서 권리 보장의 실태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에 비해 보장 수준이 높지 않았고, 특히 고등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결정 및 자기결정의 자유 보장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청소년에게 의사결정이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중등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학생자치는 중

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급별, 개인별 발달과 성향, 가정 배경 등과 연계하여 보호의 대상과 권리의 주체 영역은 청소년 개인 안에서도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자치 실현의 관점에서 중등학생이 보다 더 권리의 주체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중등학생 시기는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양적·질적인 변화의 특성을 지닌다. 피스케(Fiske, 2004)의 관계모형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부모 이외의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무엇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특히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동료뿐만 아니라 교사, 외부인 등 다양한 관계들이 정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심이 강화되고, 사회성이나 자아정체감이 길러지게 된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정옥분, 2009: 55). 다양한 관계 맺음 속에서 관계의 성숙을 이루며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인정·관심·배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박성준, 2015). 따라서 중등학생 시기는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며 학교 안팎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참여의 역량을 발휘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2.2.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학생자치

학교자치는 ‘학교의 일을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며, 자율적으로 외부의 간섭 없이 결정하고 실행하며 운영하고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이명균, 2004). 먼저 교육행정의 관점

에서 학교자치는 지방교육자치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본격화되며 5·31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 자율화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교육의 분권화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교자치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방식의 교육정책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분권화되고, 이 권한이 다시 학교로 이양되는 것을 지향한다. 다시 학교의 자율성은 소수의 지배구조가 아닌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 학교를 둘러싼 구성원의 권한 분배 문제로 연결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자치는 학교자치의 기반 아래 실행되어 진다.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기본법, 2022). 즉 법적으로 학교자치의 속성인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교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기우(1998)는 교육공동체 기본 단위인 학교의 자치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학교자치의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교육공동체인 학교가 교육 및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여 자기 책임하에 분권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직원리’ 라 정의하고 있다.

학교자치는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정책적으로 강조한 용어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단위학교의 자치강화’를 제시하며 교육부 직제로 관련 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교육부(2017)는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의 정의를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구성원들이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이후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고, 학교자치 정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개념 정의를 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태권 외(2021)는 학교자치의 핵심 키워드로 분권, 학교책임경영, 자율성, 책임과 규제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그 핵심으로 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기초한 학교 민주주의적 접근과 이에 따른 공동체성 및 공동지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 주체 간 신뢰, 관계, 문화적 접근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는 학생자치 측면에서 학생들의 권한, 참여, 책임을 넘어서 다른 주체들과의 공동체성, 소통, 협력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자치의 영역과 관련하여 김진철, 최용호(2018)는 주체를 기준으로 교직원자치, 학생자치, 학부모자치로 구분하였고, 이 중 학생자치의 구성 요인을 교육주체 소통·공감·토론, 교육활동 학생 의견 수렴, 학생회 주관 학교 행사, 자치활동·연합활동 활성화, 교육주체 생활 협약으로 보았다. 또한 박수정, 정바울(2020)은 기능적 자치, 구조적 자치, 문화적 자치 영역 중 구조적 자치를 주체별로 구분하며 학생 부분에서 주요 교육활동 계획 시 학생 의견 수렴·반영, 주체적인 활동 조직으로서의 학생회, 학생주도적인 학생자치활동, 학생주도적인 학생동아리 활동을 구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학교자치는 학교 민주주의와 함께 사용되곤 하는데,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동의어로 보기도 하고, 학교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학교자치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에 학교 민주주의를 최상위 개념에 두고 학교자치의 완성 형태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논의이든 간에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백병부 외(2019)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지배(self-government)’ 또는 ‘자치(autonomy; 자율)’의 원리가 실현된 정치체제로 보았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 모두가 평등한 가치를 인정받고, 모두가 평등한 발언



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집합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체제라고 강조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주권자들의 자치이며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들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자기 지배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개념을 학교로 가져왔을 때, 학교의 존재 이유이며 학교 내 가장 많은 구성원인 학생의 존재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이 학교 안에서 성인들과 동등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통제와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학교 안팎의 문제에 참여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활동을 펼치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즉, 학생에 의한 학교자치는 학교 민주주의의 꽃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써 학생들이 자치하고 자율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것(백병부 외, 2019)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교 민주주의는 학생 중심의 사고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김민, 김정주, 2020).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학생자치를 논하고자 한다. 조운정 외(2015)는 학생자치활동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춰나가는 활동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인격적 지식의 관점과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 그리고 송지훈(2018)은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의 관계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학생자치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실현할 주체, 곧 시민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본연의 과제를 갖고 있다(백병부 외, 2019: 156).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큰

즐거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의 하나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상 범교과학습의 주제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이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민주국가의 구성원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거나, 선택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직접 적용되거나, 때로는 그들의 삶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조차 주체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이광원, 2019). 이에 청소년들이 공적 사회의 일원이 되고, 참여하며, 공적인 공간에서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담당해야 할 임무(Greene, 1985; Michael Apple & James Beane, 2007에서 재인용)이다.<sup>54</sup>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둔 정치적인 바른 판단과 참여에 있다.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과거 공동체의 지배 형식이나 국가 운영의 원리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민들의 생활에 관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과 공동의 삶과 관련한 문제들, 사람들 사이의 다양성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과 참여를 하는 것을 중시하며 이는 학생자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능력들 안에 지성(understanding)과 이성(reason) 사이 중간 성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판단력(judgment)’ (육혜원, 2015: 8)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렌트는 판단은

상상력과 반성이라는 두 가지 정신적 작용을 통해 산출(김선욱, 2001: 265)되며 판단이론으로 정치 문제를 다루는 정신 능력을 설명한다(김선욱, 2001: 269). 그는 판단기능이 인간의 정신 능력 가운데 가장 정치적이란다고도 보았다(Arendt, 1978: 193; 1982: 110).

이 같은 정치적인 바른 판단을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목표로써 정치적 판단력이란 아동들이 그들의 일상적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publicity)을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장원순, 2007: 117). 마은중(2019)은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이 독일의 정치 교육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판단은 자연스럽게 시민의 참여로 이어지게 되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심익섭, 2001: 53).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참여의 가치와 능동적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능동적 시민의 핵심은 참여와 실천이다. 참여의 방향은 자신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실천의 경험이다. 민주시민은 스스로 현실 문제를 직시하며 참여하는 실천적 행동가이며, 이것이 곧 민주시민교육의 최종적 목표이기도 하다(곽혜송, 홍미화, 2017: 22-23). 여기서 말하는 시민성은 기존의 규범이나 가치관, 전통을 내면화하는 시민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사회 발전과 변화를 위한 정치참여를 능동적 시민성 교육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시민성 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학생들의 미투운동, 기후 위기 대응 결석시위 등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다문화 시대의 이주민에게도 참여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주민의 사회참여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다문화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거 등 정치참여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나 타자가 아

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주민의 시민됨은 제도적 차원의 시민권 획득뿐 아니라 충성심과 소속감 등의 멤버십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쳐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킨다(송샘, 이재목, 2018: 86).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의 개념에 관하여서는 기관과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먼저 학생이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내외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및 실천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함양하는 것(인천광역시교육청, 2020)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학생활동, 교과 활동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학교 생활, 지역사회 활동 등과 연계한 실천활동,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고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생이 자기 삶의 문제, 공적인 관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서울특별시교육청, 2018a)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활동(교육부, 2019)으로 폭넓게 정의되기도 한다.

이렇듯 학생자치활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경험해야 할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과정을 학교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황여정, 2018).

이에 더해 송지훈(2018)은 세 가지 관점에서 학생자치를 정의하였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

목표를 학교 구성원이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만나는 모든 구성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 및 배려, 공감 등의 소양을 함양시키는 과정이다. 교육적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학교와 학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인격을 함양해 나가는 과정이다(송지훈, 2018). 또한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해 학교조직을 구성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권리 옹호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전체를 말한다(이병환, 2015).

학교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학생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공정한 방식을 통해 주장하고, 균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정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올바른 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의 의무로 볼 수 있다(이중섭 외, 2012). 이러한 과정의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참여의 경험을 갖는 것은 민주시민 역량 함양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황여정, 2018). 그러므로 학생자치의 영역은 좁게는 학생회 활동에서 시작하여 학습, 생활 등 학교 생활의 전 영역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2.3. 교육과정과 법·제도에서의 학생자치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을 제시한 문서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동, 진로활동으로 나뉜다. 이 중 자율활동 영역 내 자치활동이 세부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육과정 총론 상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차원의 핵심역량으로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서 교과와 비교과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 범교과 학습의 주요 요소로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1960년대 2차 교육과정 시기에 학생자치활동이 처음 제시되었다. 특별활동 총괄목표 상에 자치적인 활동을 지도하고 이에 참여시켜,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다로 언급되어 있다. 자치활동의 예로는 아동 전체가 참가하는 아동회와 각종 위원회, 아동 집회를 제시하였다(정구영 외, 2020). 이후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다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서 자치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구영 외(2020)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학생 자치활동의 변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규율의 내면화 단계(1951-1968), 공동체 의식 강화 단계(1968-1988), 학생 자율권 주장 단계(1988-2005), 참여를 통한 시민역량 강화 단계(2005-2019)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영순(2015)은 교육과정에서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모의 의회나 토론회, 다양한 자치 운영위원 활동 등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실천을 경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라는 자치활동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새로운 학교의 규칙이나 활동을 계획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상의 자치활동은 학급회, 학생회 활동과 같은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주로 일컫지만, 최근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2021)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학생 중심 활동을 촉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을 추진하였다.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학

교급별 특성,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재구조화하되,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을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재구조화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학급 공동체 중심의 자율·자치활동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학생자치의 법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정책, 공문 등 근거를 바탕으로 실행된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정과제, 교육감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학생자치와 관련된 법령,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의 뿌리를 이해하고, 향후 학생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익하다(김요섭 외, 2020).

먼저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의 줄임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각종 법의 형식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김요섭 외, 2020). 학생자치활동 관련 조항은 1949년 제정된 후 48년간 유지되었던 「교육법」이 폐지되고,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0년이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sup>3)</sup>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등 민주주의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어른들의 자치는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무수한 논의를 거쳐 왔지만 하루의 절반 또는 대부분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치활동 조항은 달랑 한 줄로 규정된 채 수십 년째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유은혜 의원실, 2013).

이처럼 학생의 자치는 법률로 보장하는 사항이며 「교육기본법」 제 5조 제2항은 학생이 학교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초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과의

---

3) 2012년 법문의 한글사용 등에 따른 정비 차원에서 한 차례 개정되었을 뿐 내용상 변화는 없음

간담회 등을 실시하거나 학생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학교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육과정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교복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을 결정할 수 있다(김요섭 외, 2020).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2021),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2).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권장, 보호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구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근거를 학교 규칙에 둬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은 단위학교의 사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의견 수렴 등)에서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2).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 사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주체의 균형성, 학교 민주주의 차원에서 학생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현행 법령은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식 위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임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같이 법령상 보장된 학생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에서조차도 대부분 회의 참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생



대표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마저도 연 1-2회 정도의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다. 제한적이거나 학교의 중요 기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이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구속력이 없고,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 한계가 있다(김성천 외, 2019). 이에 제21대 국회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식 위원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다.

자치법규인 시·도의 조례에서도 학생자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여러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에서 학생의 자치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조례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여 제정된다. 조례는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이 발의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교육감의 교육규칙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해서는 서울, 충남, 부산교육청이 학생자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지역의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자치 조례 등에 학생자치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위원회의 설치, 연수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도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최근에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상위 법령이 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라는 애매한 표현만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시·도별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요섭 외, 2020).

현재 학생의 자치활동은 법으로 권장·보호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학생회는 법적인 기구는 아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학생회 설치를 학교 운영위원회와 같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 시 필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교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줄이고 학창시절부터 참여와 자치의 원리로 책임 있는 생활태도를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생회의 활동을 법적 기구의 활동으로 보느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제는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와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활성화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포괄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과 학교별로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는 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생 참여의 보편적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회의 법적기구화 및 지원 내용의 구체화·의무화로 실질적인 학생자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는 이를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김요섭 외, 2020).

법적인 근거를 갖는 학생자치를 교육정책의 실행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학생자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다. 교육부에는 직제상 학생자치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지만, 부서의 특별교부금 교부의 형태로 일부 시도 교육청의 학생자치 정책을 보조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흐름 속에서 학생자치 정책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 이관된 상황이며 각 시도 교육청의 학생자치 정책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먼저 예산 측면에서 교육청의 목적사업비 또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일 정액(1-3%, 시도 교육청별 상이)을 학생자치를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참여예산제,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이행비 지원, 학생회 운영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의 예산 편성 운영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회 공약 실천 사업 및 학생 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실제적으로 학교예산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학생자치기구(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 공모,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학생이 디자인하는 학교생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b).

다음은 물리적 공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론의 장을 위한 학생자치 공간 구축 운영비 및 컨설팅 지원 정책이 있다. 그리고 학급자치 강화를 위한 학급 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상 월 1-2회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회의 결과를 학급, 학교 운영에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학생자치회와 학교장의 간담회로 학생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 대표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나아가 개별 학교 내 학생자치활동을 넘어 학생자치회 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학교 간 연합 자치활동을 지원하는데 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 대표 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의회, 컨설팅단, 청소년교육의회, 사회참여 동아리 등 교육청 단위의 학생자치기구를 조직하여 교육정책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화와 홍보를 위해 학생자치 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작·보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한다. 그 외에도 학생자치활동 중점학교 운영, 관련 정책 연구, 교사 연수, 학생 대상 교육, 학생자치 정책 숙려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학생주도 민주시민교육 실천 프로그램, 청소년 정

책 토론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육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생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자치와 관련한 지역 단위 인정교과서를 개발하여 학생자치 교육용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 3. 학생자치와 민주시민성 실천

#### 3.1. 비판이론과 주체성의 관점에서 본 민주시민성

비판이론은 인간해방에 핵심을 두면서 인간 이성의 계몽을 넘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여기서 해방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종류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일컫는다(정영수, 1990). 김영순 외(2020)는 이를 자연스러워 보이는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권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위장되어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사회의 억압적인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변혁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이것을 교육 안으로 가지고 오면, ‘학생과 성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정책, 행정, 교수·학습 등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학생이 학교에서 처한 고통과 억눌림은 무엇인가? 학생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와 같은 문제로 만나게 된다.

비판이론가들은 교육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존에 설정된 기준에 따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자치는 과거의 상명하복식의 성인과 학생과의 관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주입식 교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당사자인 학생의 이해관계가 대변되지 못하는 학교 현장, 학교 집단 속 학생의 주장과 욕구가 억압되는 현실에 맞서는 질문거리를 던져준다.

특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은 국가나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내용으로 조직될 가능성이 크기에 어쩌면 전통적인 교육만으로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의 학생자치활동의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학교장, 교사, 직원 등 학교에서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전통적 주체들

은 대부분 성인이었기에 이들의 틀을 벗어나는 학생들의 의견과 주장은 학교 운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래서 학생이 자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의견을 만들어내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학생자치의 가치가 비판이론의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학생들은 자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모순된 교육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발현하며 궁극적인 해방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비판적 교육패러다임에서는 자율적이고 성숙한 인간 이념을 교육 목표로 삼는다. 성숙이란 곧 자기결정능력과 비판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판단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판적 교육의 목표는 도구적, 형식적, 기술적 합리성을 비판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순구조를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하여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이 소외된 자율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홍성철, 2009: 61). 따라서 학생자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토론하며 상호 비판과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은 한쪽 측면의 사고만으로는 불완전하기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며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무엇보다 비판이론에서의 교육패러다임은 주체의 복원에 중점을 둔다. 비판적 교육패러다임은 비판과 계몽, 해방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교육 실천에서 권위주의적 접근을 배격하고 개방된 토론과 자유로운 참여 기회를 확장(정영수, 1995: 55)한다. 이러한 비판, 해방, 극복 실현의 차원에서 ‘행위주체성(agency)’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위주체성은 그 뿌리가 사회학에 있으나, 최근에는 교육학, 인류학, 심리학, 학습 연구 등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학문

분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행위주체성의 핵심적인 의미는 불분명한 편이며, 이로 인해 이 개념을 둘러싼 개념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소경희, 최유리, 2018).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행위주체성은 특정한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기에 자율성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최근에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의 역동 속에서 이해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또한 자율성이 일종의 부여받은 권한이라면, 주체성은 자율성의 기반 아래 성취해나가는 영역으로 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에서 주체성은 자신의 삶과 사회생활, 학교생활에서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Bandura, 2001; OECD, 2019; Tapal et al., 2017). 주체성의 구성은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과 변화하는 기대들에 수동적으로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식을 해체하기도 하고 재구성하기도 하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김효숙, 이경화, 2018). 이처럼 학생들이 주체로서 행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왜, 어떠한 실행을 통해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행위주체성(agency)이라는 개념이 논의되어 왔다(Arnold, Charke, 2014; 하희수, 김희백, 2019에서 재인용).

박상준(2020)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복잡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서 기본적 토대가 되는 학생의 주도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학생주도성을 자신의 삶과 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목표 또는 과제를 정하고 그것을 주체적·능동적으로 성취하고 책임지는 역량(박상준, 2020: 770)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리드비터(Leadbeater, 2017)는 주도성(agency)의 유형을 도덕적 주도성, 창의적 주도성, 경제적 주도성, 정치적 주도성으로 보았으며 이중 학생자치활동은 정치적 주도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한다. 정치적 주도성의 목표는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으로 시

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이행하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법규와 권위를 존중하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상호 협력을 통한 자치의 행동 요소를 갖는다(박상준, 2020: 771).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의사와 능력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설계하며, 운영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주체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학교 안팎의 삶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합리한 관행에 맞설 수 있다. 비판적인 사고와 더불어 능동적 행동과 실천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3.2. 민주시민성 실천으로의 자치활동

플레이리는 억눌린 자들이 스스로 왜곡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지각의 명료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비판적 지각은 단지 지적인 것을 갖추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행동과 성찰의 결합인 프락시스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프락시스는 영어로 실천을 의미하는 ‘practice’ 와 어원이 같다. 하지만 플레이리는 단순한 실천으로의 프락시스 해석을 반대한다. 프락시스란 행동과 성찰의 변증법적 통일이며, 행동으로부터 성찰하고, 성찰을 바탕으로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과정이기 때문이다(송훈섭, 2022). 프락시스의 관점에서 자치활동 시 실천 과정의 준비, 조직, 실행까지 학생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생의 자치활동은 필연 실천적이어야 한다. 참여의 범위나 깊이는 학생 연령, 학교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치활동 과정에 학생 실천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학교와 교사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플레이리는 민중을 향한 신뢰와 참여가 배제된 프락시스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락시스로서의 자치활동을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필수적이다. 학생은 어려서 할 수 없거나, 특정 목표를 위해 학생을 동원, 조작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 가치는 변질되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해 겸손과 사랑, 용기와 관용 그리고 인내와 조바심 간의 긴장을 조율하는 자질, 결단력과 안정감 그리고 삶을 즐겁게 만드는 자질이 진보적인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플레이리는 지적한다(송훈섭, 2022). 자치활동에서 교사는 학생이 다소 더디고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친절히 알려주고, 학생의 역량을 신뢰하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다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민주시민성의 실천 과정은 단기적일 수 없기에 지속적인 행동과 성찰의 반복이라는 관점에서 단기간의 성과를 도출하는 일에 조급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 교육에서 참된 의식과 실천이 결합된 프락시스는 우리가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소민, 김영순, 2015).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이 은행적금식 주입식 교육에서 문제제기식 논쟁성 교육으로 바뀌고, 교사와 학생이 지식 전달자와 수용자 관계를 넘어 공동의 주체와 탐구자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플레이리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문해력 교육이었다. 이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자치활동에서 논쟁의 과정을 경험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정립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로 설 수 있게 된다.

#### 4. 소결

학생자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배우는 과정인 동시에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이영근, 2018). 즉 학생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이고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요청하는 일(김용, 2019)이며 이는 시민성 함양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같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법과 제도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학교자치의 기반 아래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현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시민성 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시민성,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각의 시민성이 지닌 강점이 존재하지만, 개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유주의 관점은 개인들의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최현, 2010).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고, 집단주의와 위계질서 강화, 공동체 외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배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현대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이익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방법으로 비지배의 자유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리고 지켜나가야 할 공동선의 원리로 삼기도 한다(김현숙 외, 2020). 결국 그 안에 담긴 정신이자 바람직한 민주시민성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하는 광의의 교육철학을 실현해갈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함양해야 할 것이다(심승환, 2019: 80). 이에 박병기(2020)는 시민윤리로서의 시민교육, 즉 개인의 도덕성과 타자와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부각되는 윤리를 강조

하였다. 이는 타인의 부당한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실존하는 맥락 속에서의 관계성으로서의 관계 윤리 구현의 당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타인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실천성이며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각각의 지향이 민주시민성을 완벽하게 설명해줄 수 없기에 공동의 토대 위에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수용한다면 건강한 시민성의 요소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각각의 시민성이 갖는 긍정적 요소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시민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민주시민성의 논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인종, 언어, 민족, 생각, 가치 등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이 중요하다. 이로써 균형과 통합, 전 세계를 향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지구촌 구성원 간의 연대, 인류애, 다문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문화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시민성에 대한 일방적 수용이 아닌,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아렌트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고,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판적 사유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함께 살아가는 공적 세계에 대한 아렌트의 생각은 세계화 시대에 일국의 시민성만이 아니라 세계시민성 교육을 말하는 것이며 소수자의 권리와 호혜적 삶의 문제를 핵심 교육내용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이하준, 2021).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시민성으로 보았을 때, 학생자치의 기저에 있는 정신은 학생이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순간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교육은 학생이 자치능력을 갖추으로써 좀 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조운정 외, 2015). 또한 학생자치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학생이

주체성을 발현하고, 행동과 성찰의 반복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등학생이 자치활동 경험에서 실천하는 민주시민성을 크게 자율성과 주체성, 공공성, 연대성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무페(Mouffe, 1992)는 시민성의 핵심을 자율성으로 보고 개인의 자유, 이익을 위한 권리를 중시하였는데, 이는 학생자치에서의 학생의 자유와 권리, 교육활동에서의 주도성과 결정권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와 권리는 필연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 영역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모이는 장소이고, 공개된 장소이며, 공공복리가 구체화되는 장소이다. 특히 공공성은 단순한 공개성이 아니라 공개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성립된다(조한상, 2009: 48-49). 따라서 공론장에서의 논의, 그리고 논의 결과 도출되는 사익을 넘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프레이리가 강조한 교육의 본질로서의 연대성의 주요 요소는 존중, 상호 협력, 신뢰 등이 있다(강수택, 2019).

### Ⅲ. 연구 방법

####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한 중등학생의 경험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연구참여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른 경험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양적연구보다는 질적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연구는 빈도(frequency) 등에 의하지 않고 사회 세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해석하고, 묘사하고, 해독하고, 번역하는 기법이다(Van Maanen, 1979). 그리고 질적연구의 장점은 특별한 상황이나 사람에 초점을 두며 숫자보다는 단어를 강조하는 귀납적 접근이기에(Maxwell, 2005)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질적연구의 목적은 연구주제와 연관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표면화하고 비판적, 성찰적으로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폭력과 불평등의 상황들을 드러내거나 사회 및 국가의 대처방식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 대응방안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와 대처전략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민첩한 참여관찰과 심층적 이론 탐색 및 개발을 수행하는 데 있다(김영순 외, 2018: 7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말하는 학생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까지 탐색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적연구 중 사례의 맥락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데에는 질적 사례연구가 적합한 연구방법이다(Stake, 1995). 크레스웰(Creswell, 2007)은 질적 사례연구를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인 단일 사

례 또는 여러 개의 경계를 가진 다중 사례들을 탐색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거쳐 사례를 기술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사례연구는 특정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또는 조직, 문화, 사건 등의 대상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회적 환경, 사건, 집단 등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상의 특징이나 문제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 분석하는 연구이다.

특히 사례연구란 실생활에서 발생한 한 개의 사례 혹은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사례에서 나온 자료를 정성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실생활’이란 연구 대상이 그 어떤 인위적 조작도 없이 실제로 처했던 현실을 의미하며 현재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거나 혹은 존재했던 연구 대상을 연구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Dul & Hak, 2008: 4-5).

본 연구는 학생자치를 고민하고 실천한 학생들의 실생활에서의 경험을 살펴보고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참여 경험과 의미를 민주시민성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학생자치에 참여하는 개인과 학생 집단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 특정 사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례연구 설계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다중사례연구 형태를 따르는데, 다중사례연구란 한 연구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사례를 담는 것을 말한다.

인(Yin, 2005)은 사례연구의 절차를 연구설계, 자료수집 준비, 자료수집, 자료분석, 보고서 쓰기의 5단계로 설명하였으며(조성남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절차로 통용되는 인(Yin)의 절차를 준용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설계 차원에서 논문 주제와 연구 문제를 내실있게 설정하고, 연구 방법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

하였다. 이어 학생 경험의 근간이 되는 민주시민성과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한 단행본, 정책연구 보고서, 국내학술논문, 박사학위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및 자료 요청 등으로 교육부, 교육청의 관련 문서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핵심은 연구참여자가 자치활동의 경험을 직접 기록한 기록물이다. 이는 단편적인 인터뷰 질문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연구참여자와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가운데 학생자치와 관련한 경험 전반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수집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이 구술한 이야기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좀 더 의미있는 지점들을 보다 자세히 말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은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활동 전반에 걸쳐 경험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아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대화, 관련 활동 후의 소감 등도 연구자료로 참고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4년 이상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에서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깊은 현상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만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 대화, 글 안에는 그들의 배경, 삶의 자세, 성공과 실패, 기쁨과 아픔 등 개인적 의미가 담겼으며 이를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학생자치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 정책적 흐름 등과 같은 사회적 의미와 연결할 수 있었다.

자료 수집을 마친 후에는 자료를 종합 분석하며 이론적 논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기록물 분석, 심층면담 기록의 전사, 코딩 후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위 절차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문을 작성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질적 사례연구의 초점은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개별 학교와 교육청 단위 학생자치 조직에서 일어나는 자치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러한 경험은 민주시민성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본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학생자치에 참여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취지에 맞게 해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연구 과정과 연구참여자

### 2.1. 연구 과정과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써 I시 교육청의 단위 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참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중등학생 1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처음에는 총 20명의 학생자치활동 경험을 가진 중등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심층면담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 등으로 4명의 학생이 불참 의사를 밝혀왔으며, 연구참여자의 연구 참여 철회 의지를 존중하여 4명을 제외한 총 16명의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확정하였다. 김영순 외(2018)가 강조한 질적연구의 과정의 유연성과 질적연구 초기 계획이 엄격하게 규정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연구참여자를 확정하였다.

질적연구의 특성상 목적 표집의 방식을 취하되 학교급별, 성별, 자치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할당표집과 최대 다양성 표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16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I시 교육청의 학생자치 공식기구에서 활동하는 학생과 학생자치 전문가 교사의 추천 등으로 진행하였다. 공식기구에서 활동하는 학생의 경우 활동 시작 당시 공개 선발 및 선출의 절차를 거쳤고, 학생을 추천하는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 확정 후에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작성 과정에 함께하였으며 연구참여자를 총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김영순 외(2018)는 연구참여자는 대상이 아닌 연구자의 연구를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이자 연구주제에 대한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를 안내하는 안내자라고 강조한다. 특히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열린 마음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조언

한다. 무엇보다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친밀성, 관계성을 중시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목적을 지닌 대화를 심층적으로 이끌어 나아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 간의 동등성과 친근성이다(Bogdan & Biklen, 2015).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만을 위해 연구참여자나 임의로 친분을 쌓은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함께 자치활동에 참여하며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일차적인 연구목적 달성을 넘어서서 연구참여자의 관심 주제인 학생자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기다리며 함께 고민하는 친구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지향하였다. 동시에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개방적인 태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참여자 16명 중 14명은 연구자와 기존에 1회 이상 만났던 학생들이었으며, 이 중 12명은 6개월 이상 학생자치를 주제로 공식기구, 토론회, 행사 등을 거치며 관계를 맺어왔기에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 구성이라고 판단되었다. 연구참여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는 상호 간 이익,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아니었으며 연구뿐만 아니라 자치활동에 관련한 참여 동의, 진행 과정, 지속 여부 등은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선정 후 그룹별 심층면담을 위한 그룹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먼저 연구참여자 ‘가 그룹’은 I시 교육청 공식기구인 학생참여위원회, 청소년자치배움터 은하수 임원 등으로 활동한 중등학생 4명이다. 학생참여위원회는 I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 학생의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2020년 9월, 공개 모집 및 추천 등의 방법으로 초, 중, 고 학생 30명 규모의 제1기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학생참여위원회 임원은 위원회 내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였다. 1기 위원회는 운영 분과, 정

책 분과, 홍보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해당 기구는 2022년 8월 기준, I시 교육청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로 중, 고 학생 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단위 학생참여위원회로는 초, 중학생 9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은하수 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자치배움터로 청소년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는 I시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자치학교명이다. I시 교육청 관내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안팎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세부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은하수 학교

학교명	은하수 학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모두 저마다의 빛을 가진 별이고, 그 별들은 협력과 연대로 모두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학교 마크		수면 위로 올라와 물을 뿜는 고래는 새로운 상상을 하는 청소년을 표현하고, 등글게 배열된 별은 연대를 상징한다
핵심가치	비전, 사랑, 연대, 주체성	
비전	우리가 ‘가치’ 빛나며 성장하는 은하수 학교	
슬로건	새로운 상상, 따뜻한 연대, 모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은하수 학교(상상! 도전! 연대!)	

은하수의 모든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다. 활동 시간은 방과 후이고, 평일 또는 토요일에 가능한 시간을 프로젝트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장소는 주로 00학생교육문화회관이고,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D 기록물)

‘나 그룹’은 중학생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1년 I시 교육청에서 학급자치 활성화를 위한 스스로 학급 심화형 운영 학급 담임으로 활동한 교사 등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학급, 학교 학생자치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다 그룹’은 고등학생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급자치 활성화를 위한 스스로 학급 심화형 활동 교사, 「학생자치와 사회참여」 인정도서 집필 교사, 「온라인 학생자치 안내서」 집필 교사 등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학급, 학교 학생자치회에서 활동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라 그룹’은 I시 교육청 고등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 지역별 대표 및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학생 3명이다. 학생자치 네트워크는 각 학교 학생회장, 부회장 중심의 조직으로 2018년 9월 처음 구성되었으며 2022년 9월 기준 제5기 학생자치 네트워크가 구성, 운영 중이다. 관내 전체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부회장 등 약 3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간 학생자치 활동 공유, 지역별 연합 활동 등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교육감과의 간담회 운영, 시 단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기획,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안내서 기획 등이 있다. 5개 세부 지역별 학생자치 네트워크 내에서 지역별 대표 및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학교 학생회, 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참여위원회 소속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에게 연구 개요를 소개하고, 면담 전 연구 목적 및 방법과 연구참여자의 권리,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 처리, 면담내용의 녹음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에 동의할 경우 연구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 2.2. 연구참여자 소개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해 살펴보고자 4개 그룹 16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룹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그룹별 연구참여자를 소개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참여자

그룹 (번달일)	연구 참여자	성 별	학 년	대표적인 학생자치활동 경험
가 (2022. 1.23.)	A	여	고3	- 학생참여위원회 정책위원장(20-21년, 1년)
	B	여	고2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20-21년, 1년) - a중학교 학생회장(18년, 1년) - b고등학교 학생회장(21-22년, 1년)
	C	남	중3	- 학생참여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20-22년, 2년) - c중학교 학생회장(21년, 1년)
	D	남	고3	- 청소년자치배움터 은하수 1기 대표(20년, 1년)
나 (2022. 2.13.)	E	남	중3	- d중학교 학생회장(21년, 1년)
	F	남	중3	- e중학교 학생회장(21년, 1년)
	G	여	중3	- f중학교 학생자치회 활동(21년, 1년)
	H	여	중2	- g초등학교 학생회장(20년, 1년) - h중학교 학생자치회 활동(21년, 1년)
다 (2022. 2.12.)	I	남	고2	- i중학교 학생회장(19년, 1년) - j고등학교 학생부회장(21-22년, 1년)
	J	남	고2	- k고등학교 학생부회장(21-22년, 1년)
	K	여	고2	- l고등학교 학생회장(21-22년, 1년)
	L	여	고2	- m고등학교 학생회장(21-22년, 1년)
	M	남	고2	- n고등학교 학생부회장(20-21년, 1년)
라 (2022. 2.19.)	N	여	고1	- 학생자치 네트워크 o지역 대표(21-22년, 1년)
	O	여	고2	- 학생자치 네트워크 p지역 대의원(21-22년, 1년)
	P	남	고2	- 학생자치 네트워크 q지역 대표(21-22년, 1년)

연구참여자 A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다. 제1기 학생참여위원회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교육감과의 대화, 기후위기생태교육에 관한 청소년 정책 포럼 등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참여하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고등학교 3학년 시기는 입시 등으로 어느 때보다 활동에 부담이 많은 시기였으나 입시 준비, 자치활동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이 시기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학생자치 네트워크 활동과 학생회장 활동을 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너는 공부 안 하니?”

“공부에 방해되지 않아?”

“대학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생기부 관리 안 하고 그런 것 할 시간이 있어?”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다.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솔직히 조금 억울하기도 했고 눈치도 보였다. 그리고 학생자치가 이렇게 취급된다는 것이 씁쓸했다.(중략)

고등학교 3학년이니 너무 부담스럽다면 다른 학생에게 넘겨주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었다.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누가 보면 공부를 해야 할 때에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벌써 정책 포럼을 마치고 난 뒤에 얻을 성취감을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A 기록물)

연구참여자 B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다. 중학교 때부터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B가 졸업한 중학교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는 혁신학교였으며, 중학교 시기 학생자치활동을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에서 활동한 경험을 비교, 대조하며 학생자치에 대한 자신만의 고민을 이어가는 학생이다.

처음에는 학생회에 적응하느라 꽤나 고생을 하였다. 중학교 때와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다. 중학교는 각 학년별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였기에 회장단이 총 6명이었으나 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회장 1명과 1, 2학년 학생 부회장 1명씩 총 3명으로만 회장단이 구성되었다. 더 이질감이 들었던 부분은 부서 편성이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학교는 타 학교와 차별화된 부서들을 편성했었다. 그런 학교에서 졸업한 내가 고등학생이 되어 마주한 부서는 총무부, 환경부, 봉사부와 같은 기존 이름의 부서들이었다.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 학교에, 이 학생회에 적응하는 데에만 반년이 걸렸다.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과 약속을 하나 했다. 절대 내가 경험한 학생자치만을 고집하지 말 것! 고등학교 학생회를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울 것! (연구참여자 B 기록물)

아울러 연구참여자 B는 학생참여위원회 여러 활동에서 사회를 맡는 등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교육방송사에서 주관하는 학생자치 대담회에 출연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처음에 학생참여위원회에 지원했을 때는 위원들만의 특별한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위원회 활동 속에서 선배, 동료, 후배들과 교류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학생자치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특히 학생참여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영리 청소년단체에서 재정착 난민을 위한 봉사활동,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콘서트에 참여하며 학교 밖 자치활동에 힘쓰고 있다.

연구참여자 D는 청소년자치배움터 은하수 학교에서 활동하는 학생이다. 은하수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연구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학생자치에 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글로 담아보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해주었다. 이 학생은 스스로를 ‘자치인’ 이라고 표현하며 학생자치를 통해 깨달은 가치를 ‘참여, 소통, 사랑’ 으로 표현하였다.

은하수 학교를 통해서 나는 한 명의 자치인으로 성장했다. 자치인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 나아가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회장이나 대표만이 자치인이 아니다. 자치를 사랑한다면 누구나 자치인이 될 수 있다. 자치는 ‘자치인’ 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중략) ‘참여, 소통, 사랑’ 이것이 내가 찾은 답이다. 자치라는 별빛을 모아 은하수로 완성시키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자치의 기회가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질 때, 옆 친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한 방향으로 노를 저을 때,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사랑할 때, 별들은 아름다운 은하수가 된다. (연구참여자 D 기록물)

특히 학생회장이나 대표만이 자치인이 아니며, 누구나 자치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학생자치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E는 남중에서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이 남중보다는 남녀 공학이나 여중에서 잘 이루어진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는데, 남중에서 의미 있는 실천을 만들어 간 학생이었다. 해당 학교는 교육청 학생자치 네트워크에서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가 3년간 연속으로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며 학생자치를 연속성있게 추진하는 학교였다. 이 교사는 학급, 학년자치 활성화를 위한 스스로 학



급 운영 교사이기도 한데, 학생자치 실천 기록물을 작성하는 중 글에 담긴 해당 학생의 소감을 읽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연구참여자로 추천 받게 되었다.

'7만원의 행복'할 때 친구들 의견 모으고 영수증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성취감 같은 것도 느껴졌던 것 같고. 공금을 이렇게 규칙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학생회장 공약이행비를 그때의 경험으로 다양하게 잘 써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자 중학교와의 동아리 연합 활동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약이행을 못할 것 같아 너무 아쉬워요. 현재 게더타운을 활용하여 진행해볼까도 고민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참여자 E 기록물)

연구참여자 F는 중학교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다. 이 학생을 비롯한 중학교 참여자의 특징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1년 차인 2020년에는 사상 초유로 등교가 1개월 이상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혼란기였다. 그간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학생자치활동이 아닌 온라인,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학생자치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활동을 처음 접하고 시작한 세대의 연구참여자이기도 하다. 특히 다른 중학생 참여자에 비해 온라인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한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G는 비임원 학생으로 학생자치회와 교육청 단위 자치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학생자치는 회장, 부회장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도리어 특정 임원 중심의 자치활동은 그 방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귀족적이라거나,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 G는 학생 선거교육

을 위한 학생자치회 선거 톨아보기 1-4편의 기획, 제작, 촬영 과정에 참여하여 학생 주권자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초등학생 시절 학생자치 네트워크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험을 살려 중학교에서도 학교 내 학생자치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이다.

연구참여자 I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연구참여자 I를 직접 만난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자리였다. 이 참여자는 교육정책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치러진 위 행사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자치교육’이라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학생자치가 학생이 주도하는 것이므로 학생이 강사로 나서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자치 공유회를 실시하여 학교 간, 학생 간 실천 사례들을 직접 기획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연구참여자 I가 제안한 정책은 2022년 I시 교육청의 정식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 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학생자치아카데미’라는 공식 정책으로 실행되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학생자치아카데미를 이수한 학생이 공동 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습한 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자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J는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에서 활동하는 2학년 학생이다. 온라인 학생자치 안내서를 집필하고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었다. J를 처음 만난 것은 2021년 학교혁신 관련 행사로,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주제로 한 토론회장이었다. ‘우리학교 학생 100인 토론회’라는 학교 단위 학생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했던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K는 여고에서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학교 내에서 다양한 행사, 활동을 하며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L 역시 여고에서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학생자치 관련 중·고등학교 인정교과서를 집필했던 학생자치 담당교사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L은 학교 안에서의 자치활동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 활동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다.

1년 동안 접경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런데 그 접경 프로젝트의 의미는 선을 넘어서 공간으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우리 그 선을 넘어서 공간이라는 말이 우리 마을에 대한 마을에 더 가까이 가보자 마을에 대한 그런 벽을 허물어보자 이런 좀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이 접경 프로젝트는 기자단 그리고 번역된 동화 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마을의 지도를 제작해서 책을 만드는 행사를 했었고요. 기자단은 우리 마을에 있는 다양한 분들을 학생들이 직접 기자단을 모집해 그 학생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인터뷰를 하러 나가는 행사였는데 거기에서 단순히 우리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이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어떠한 가게를 운영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담아온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연구참여자 L)

연구참여자 M은 남고에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는 2학년 학생이다. 학생회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고민과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

으며 교육청 단위 학생자치 연합활동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N은 고등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 o지역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다. 학생자치 네트워크는 지역별 학생회장, 부회장의 소통과 연합활동을 위한 교육청 공식 조직인데, 학생자치 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하고 싶다고 자원을 하였고, 다른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대표 직을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 O는 p지역 학생자치 네트워크 대의원을 맡고 있다. 특히 학생 인권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학생의 인권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딘가에 내비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생자치활동, 학생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뭔가 제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그리고 뭔가 더 이제 학생들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학생자치 활동에 점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연구참여자 0)

연구참여자 P는 q지역 학생자치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 재학 중 비영리 청소년단체를 직접 만들어 활동한 경험이 있다.

단체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문 처리를 못한다거나 또는 공모 사업에 접수를 못한다거나 아예 그 단체증이 없으니까 비영리 단체증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계속 사단법인이라든가 비영리 단체라든가 알아보니까 대표자가 미성년자라서 안 되더라고요. 법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나 그래서 막 거의 2년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

로 했었다가 한 1년 반, 2년 전쯤에 등록을 했고요. (연구참여자 P)



### 3. 자료 수집 및 분석

#### 3.1. 자료 수집

김영순 외(2018)는 질적연구에서 현상 내지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행동과 시각을 맥락적 범위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성신명(2020)은 질적 사례연구의 구성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수집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복잡한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1) 학생자치 기록물

질적 사례연구 수행을 위해 먼저 현장 텍스트 자료인 연구참여자들의 학생자치 기록물 분석하였다.

학생자치 기록물이란 학교, 교육청 등에서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기록하여 자가출판의 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자서전적 글쓰기는 삶의 전체적인 맥락을 기술하는 하나의 방식(Clandinin&Connelly, 1999/2006)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평소 학교,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자치 네트워크 활동과 학생참여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하며 참여 동기, 활동 내용, 소감 등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연구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 해당 기록물을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학생의 자치활동 실천 경험을 단 몇 회의 인터뷰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평소 실천 경험 중 담아두었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이다. 학생자치 기록물은 A5 책자 기준 총 173페이지 분량이며 총 6명의 학생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록한 결과물이다. 책의 제목은 「학생이 들려주는 자치이야기」로 학생회와 함께한 5년, 나의 양분 학생자치, 학생이 만드는 좋은 정책, 학교 밖에서 만난 자치활동, 사회 참여의 시작 나부터 행동하기, 은하수에서 빛나는 학생자치, 학생자치 수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자치 관련 책들은 많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자치를 말하는 글은 희소하였다. 이 기록물에는 학생이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삶을 펼쳐간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학생자치 기록물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목차 및 내용체계 작성을 위한 협의, 개요 작성을 위한 협의, 기록물 검토 협의, 결과 활용 협의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연구참여자들과 5회 이상의 만남을 가졌으며,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서 수시로 의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자치활동을 하는 6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각자만의 솔직 담백한 자치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중략) 정책제안, 학생회, 학교 밖 참여활동, 청소년자치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학생자치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학생자치나 교육에 대한 책은 대부분 어른이 쓴 게 많았다. 이 책과 같이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것은 아주 희소하다.

작년 8월에 제의가 들어와서 2월에 출간했으니 책을 만드는데 7개월 정도 걸렸다. 줌으로 회의하고 각자 파트를 나누어 쓴 부분을 합치는 식으로 만들었다. 같이 쓴 친구들은 예전부터 내가 존경하던 친구들이었다. 꿈을드림, 학생참여위원회 등 관심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예전에 본 EBS 영상에 출연하기도 한 멋진 친구들이라 팬심 가득한 마음으로 글을 썼다.(중략)

사실 쓰느라 엄청 힘들었다. 수능 끝나고 학교에서의 시간 절반을 책 쓰는데 쏟아부은 것 같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머리는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 글을 다시 보고 다듬어도 깔끔한 문장 하나가 참 나오기 어렵다. 특히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하고 수정해서 아슬아슬하게 보내는

그 스릴이 참... 시간을 맞추느라 커피를 먹으면서까지 밤을 새워 본 게 처음이었다. 그래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최선을 다해 글을 써 보고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경험은 살면서 또 언제 해보겠는가. 열심을 쓴 아부는 글이 세상에 책으로 출간되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물론 여전히 내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보여서 조금 부끄럽지만, 책이나 특강도 여럿 찾아보고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다 보니 글쓰기가 참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것 같다. 사실 블로그를 시작한 게 책을 쓰면서 영향받은 부분도 있다. 학생자치의 미래가 밝은 것 같다. 변화가 느껴진다. 다른 친구들의 글을 보면서 감동받았다. 그들이 살아온 발자취와 학생자치를 향해 기울인 노력을 볼 때면 학생자치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 책이 앞으로 학생자치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 꼭꼭 눌러 담은 만큼 학교가, 세상이 학생과 함께 더 멋지게 변하길 꿈꾼다. (연구참여자 D 소감문)<sup>4)</sup>

두 번째 기록물은 「학생자치를 꽃피우다」라는 자가출판물이다. 이 책에는 2021년 한 해동안 학급자치를 고민하고 실천한 6명의 교사들과 6명의 중등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의 목차로는 시선, 학생자치 한해살이, 학생자치 그 3년의 기록, 학급 추억 만들기, 우린 잘하고 있어, 사랑나눔반 등으로 A5 크기 187페이지 분량이다. 해당 기록물 작성을 위해 월 1회씩 6개월 간 온·오프라인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연구참여자가 기록한 글의 일부를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본 연구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 참여 학생들과 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참여위원회, 청소년 정책 포럼, 교육청 단위 자치행사 등 다양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참여자 동의하에 현장 텍스트로 참고하였다.

---

4) <https://blog.naver.com/hyunwoo9125/222660518520>





[그림 III-1] 연구참여자의 자가출판물

## 2) 면담 질문지

본격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면담 질문지를 미리 배부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한 계기, 기억에 남는 경험,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다른 교육주체와의 협력 경험, 경험에 따른 어려운 점, 필요한 점 등이다.

특히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시기로 교육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코로나19는 학교 폐쇄, 교육 격차 심화, 전 국가적인 원격 교육 등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련의 사태들을 초래하였다(장의선, 2021). 이에 학생자치활동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가 불가피하였으며 이 같은 관점에서 코로나19 시기 학생자치활동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면담 질

문지의 구성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면담 질문지 구성

번호	질문
1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학생자치가 활성화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3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4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5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학교 내 다른 주체(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와 협력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6	<p>코로나19 시기에 학생자치와 학생 참여를 위해 노력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급, 학교 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진행했던 사례</li> <li>② 학교의 여러 위원회(교복, 급식, 생활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학생 의견을 학교에 반영한 사례</li> <li>③ 수업 방법,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례</li> <li>④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이 노력했던 사례</li> <li>⑤ 교육청, 시·군·구청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 사례</li> <li>⑥ 지역사회(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참여활동 참여 사례</li> <li>⑦ 그 외 의미 있는 사례</li> </ul>
7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8	학생자치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교육청, 학교의 지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9	학생자치,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지는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참여자 및 보호자 동의를 거쳐 1차로 각 질문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3) 그룹별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그룹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이드만(Seidman, 2006)은 연구참여자와의 3단계의 면담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1단계 면담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에 집중하고, 2단계 면담에서는 경험의 세부사항을 재구성하고, 3단계 면담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자치 기록물을 기획하고 집필하는 과정, 평소 학교 밖 학생자치 관련 활동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1단계 면담의 목적인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맥락을 이해하는 작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이에 심층면담에서는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하고,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면담 자료 수집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회의 그룹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그룹별로 약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면담이 이루어진 시기는 변이바이러스 초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로 연구참여자와의 대면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제한되었고, 학생 대상 공식 대면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었던 시기였다. 이에 그룹 내 첫 번째 면담은 개별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로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그룹별 심층면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세 번째 면담이 이루어졌고, 세 번째 면담은 총 6명을 대상으로 SNS 대화방 및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구조화된 면담을 중심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기법을 혼용

하였고, 질문지는 중등학생 시기 학생자치 경험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자는 면담 시 연구참여자의 답변 의도와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 질문을 수시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김영순 외(2018)는 참여자의 진술 내용과 맥락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상황 맥락에 따른 수정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사전 질문 내용을 연구참여자 상황에 맞게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화 및 녹음하였으며 면담 종료 후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는 한글 201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4 용지에 10포인트 글자로 작성하였고, 각 면담별로 약 20-30매 분량이 도출되었다.

#### 4) 비개입적 인공물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학생자치 기록물, 심층면담 이외에 비개입적 인공물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였다. 비개입적 인공물 데이터는 참여자에 대한 해석과 관계없이 그것 자체만의 이야기를 가지며, 인간 활동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수집될 수 있다. 이는 관찰과 면담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연구에서 특별히 유용한 부분이 되게 한다(Hatch, 2002/2008). 본 연구에 활용한 비개입적 인공물 데이터로는 I시 교육청 「학생자치 활성화 계획」,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안내서」 등의 문서 자료가 있다.

## 3.2. 자료 분석

질적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수집한 자료들을 조직화하고 해석 가능한 단위로 분리하여 자료에 숨겨진 패턴을 찾는 것이다(Bogdan & Biklen, 2015). 질적연구방법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자료 분석 방법 또한 다양하다. 김영천(2012)은 일반적인 질적 자료 분석 과정으로 전사작업, 코딩작업, 주제발견의 3단계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해당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사는 수집하거나 기록한 자료를 추후 분석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새롭게 받아 적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전사는 현장에서 수집한 내용을 컴퓨터 파일에 입력하여 저장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김영천, 2012). 따라서 전사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학생자치 기록물 파일과 더불어, 그룹별 심층면담 녹음자료를 한글 201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대로 옮겨적고, 문서화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하였다. 전사의 양이 꽤 많았으나 전사하는 과정에서 분석과 아이디어 생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별도의 연구 보조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연구자 스스로 전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전사 작업 도중 떠오르는 아이디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더 궁금한 점 등을 별도의 양식 없이 추가로 메모하였다. 이는 향후 이어질 코딩 작업을 위한 기초작업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코딩작업 단계에서는 귀납적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자치 기록물, 심층면담, 보조 자료 등 각종 자료들로부터 주요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이후 세그멘팅 작업을 실시하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가며 전사록과 보조자료에 담긴 의미를 탐색하며 개념화할 수 있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반복되는 부분과 관련한 용어를 생성하였다.

보그단과 비크렌(Bogdan & Biklen)은 코딩 작업 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맥락에 몰입하고 참여할 것, 연구참여자가 강조한 내용과 더불어 이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코딩할

것, 생동감 있는 코드를 중심으로 자료를 탐색할 것, 자료가 제시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용어를 찾을 것(김영천, 2012: 534)을 강조함에 따라 본 연구 과정에서도 이를 준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개념들을 보다 긴밀하게 조직하고자 하였으며 개방코딩에서 나열된 주제를 상위 범주로 묶고 그 안의 하위 범주로 정선하였다.



## 4.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 4.1. 연구의 신뢰성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첫째, 2021년 7월 인하대학교 질적연구방법론 캠프(10시간)에 참가하여 질적연구의 기본을 익히고, 연구자로서의 연구윤리를 익혔다. 둘째,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았으며 이는 논문연구 정규수업과 개별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2학년도 2학기까지 총 4개 과목의 질적연구 및 지도교수의 정규수업을 수강·청강하였고, 수시로 지도를 받았다. 셋째, 인천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에서 학교자치, 학생사회참여활동,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공동 연구와 저서 집필을 수행하며 연구 역량을 함양하였다. 넷째, 교육부·교육청·학교 등에서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주제와 관련한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질적연구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적합한 연구활동인 트라이앵글레이션, Members check, 장기적인 관찰, 동료들과의 비평작업, 참고자료의 활용(김영천, 2012: 231) 등을 적극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를 제대로 부여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슈퍼바이저의 지도 조언에 따른 수정·보완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 1년 간 격주 화요일 19-22시에 실시한 대학원생들의 작성 논문 공유, 지도교수의 지도, 동료 검증, 타 학교 교수 및 박사급 연구자의 슈퍼바이저 검증, 연구실 콜로키움 10회 이상 참여에 따른 논문 검증 등으로 질을 제고하였다. 특히 2022년 하반기에는 격주 토요일 20-23시마다 박사과정 논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연구 과정과 결과를 검증받는 등 신뢰

성을 제고하였다.

## 4.2.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결과 만큼이나 연구윤리에 가치를 두고 있다(김영천, 2012). 본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2021년 11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211004-1A이다.

질적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연구를 철회하거나 자신이 진술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연구자는 일련의 참여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문서화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김영순 외, 2018). 이에 사전에 진술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과 동의서를 연구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연구참여자와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인 1-2월을 면담 기간으로 활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소속된 I시 교육청의 회계지침에 따르면, 성인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 4시간 이내의 경우 4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 이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 참여 학생에게 성인 대비 부족하지 않은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다. 학생 특성상 현금 지급보다는 도서상품권 등 모바일상품권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의 동의를 받아 개별 SNS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전송하였다.

그룹별 심층면담 시 학생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 녹화한 자료는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하였다. 해당 파일은 이동식저장장치에 별도 저장하여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



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하며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 IV. 중등학생이 참여한 학생자치활동의 양상

이번 장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의 자치활동 경험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4개의 활동 주제와 18개의 하위 활동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표 IV-1>과 같다. 4개의 활동 주제는 대범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 시민성 실천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 학교를 변화시키는 학교 교육과정 참여 활동, 사회를 바꾸는 학교 밖 참여활동이다. 각각의 활동 주제는 다시 4-5개의 하위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표 IV-1> 중등학생이 참여한 학생자치활동의 양상

활동 주제	하위 활동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	교내 학생 토론회
	공동체 비전 세우기
	학교장과의 간담회
	대의원회 및 교내 위원회
	학교 밖 정책 토론회
시민성 실천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	시민의 날 행사
	캠페인 활동
	학교 축제
	다양한 즐거움과 소통의 장
	리더십 캠프
학교를 변화시키는 학교 교육과정 참여 활동	학생주도형 수업
	학생 생활규정 개정
	학교 급식 참여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 이행
사회를 바꾸는 학교 밖 참여 활동	학교 간 연합활동
	사회참여활동
	자치법규(조례) 제정
	세계를 품는 참여

## 1.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

### 1.1. 교내 학생 토론회

연구참여자들은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고 있었다. 먼저 학교마다 교내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학생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당의 무대에 올라서 학교를 변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각각의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현장 답사에 다녀오는 그런 것까지 다 했거든요. (연구참여자 B)

작년에 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학생들 토론회가 가장 좀 기억에 남았는데 이 학생들 토론회를 마련을 하게된 게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라 맞물려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많이 나올 때였어 가지고 학생회 선생님들과 회의를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의원 회의나 학급회의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학생들을 모시고 얘기를 꼭 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학생 토론회를 코로나 상황에 맞게 인원을 선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의견을 그렇게 잘 낼까 싶었는데 좀 다양한 학생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해주셨고 실제로도 지금 반영이 된 의견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학교 화장실에 대한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겨울방학에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연구참여자 J)

연구참여자 B와 J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 관한 불만, 개선사항 등을 고민하고 발표하며 학교를 바꾸어간 것이다.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 직접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의 장이 학급 단위 회의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J가 참여한 학생 토론회는 우리학교 학생 100인 토론회인데, 해당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평소 학생들이 해결하고 싶은 학교의 문제에 대해 학급 회의에서 논의를 한다. 이후 선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학년 회의, 학생 대의원회 등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제안 발표, 전체 학생 선호도 투표 등을 거친 뒤 그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학교 구성원은 토론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알리고, 결과에 대해 공동 실천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내실있는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학교의 비전, 가치, 예산 등에 관한 사전 교육, 학습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림 IV-1] 우리학교 학생 100인 토론회<sup>5)</sup>

5) 현경희 외(2022). 「학생자치와 사회참여」

## 1.2. 공동체 비전 세우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며 비전과 목표를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 상과 그리고 비전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때 활동했던 것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그때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정했던 것 중에 저희 은하수 학교 비전 중에 우리가 같이 빛나며 성장하는 은하수 학교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 하나를 두고서 저희가 ‘우리가’ 라는 걸 붙일지 아니면 ‘우리’ 로 할지 아니면 ‘우리 함께’ 로 할지 그런 식으로 단어 하나에도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구참여자 D)

우리 113대 학생회의 목표를 설정하고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마련하였다. (중략) 가장 큰 목표는 각 부서가 부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각 부서 특색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B 기록물)

연구참여자 D는 학생들이 함께 공동체의 비전을 수립하였다고 말하였다. 학교에는 교훈, 급훈 등이 있지만 대부분 현재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는 관계없이 관습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구성원은 자신의 의사결정이 담기지 않은 훈(교훈, 급훈 등)에 대해 공감하고 몰입하기 어렵다. 연구참여자 D는 구성원과의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가 같이 빛나며 성장하는 은하수라는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단어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숙고하는 공동체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 B 역시 학생자치회라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

다.

최근에는 이처럼 공동체의 약속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세우고 실천하기, 학교 비전·현장·교육 약속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일제 잔재나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 담긴 교가나 교표를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 신설 학교의 경우 주체들의 참여와 협의 과정을 거쳐 교화, 교목, 교표 등을 정하기도 하며 일반 학교에서는 학교 비전, 학교의 각종 특별실 이름, 교육 공동체 약속 등을 새로 만들기도 한다.

### 1.3. 학교장과의 간담회

학교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교육권을 가진 학교 운영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인사이다(김성열, 2021). 이에 학생자치회와 학교 최고의사결정권자인 학교장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학생 생활과 관련한 주요 안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학생자치의 실효성 측면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는 많으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까지도 열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잘 반영이 되고 있구나 그럼 또 학생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다보니 학생들이 학생 이런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1)

나와 부회장 친구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기에 기획이 완료되면 바로 학생회 담당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찾아뵈어 제안을 드릴 예정이

다. (연구참여자 B 기록물)

연구참여자 I는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많게는 주 2-3회까지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의견이 학교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효능감을 느끼다 보니 그만큼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 것이다. 연구참여자 B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장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법적인 차원에서 보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K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생회는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권자와 학생들의 만남은 다양한 층위로 확대될 수 있으며 학생 대표 등과 시도 교육감, 지역 교육장과의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 1.4. 대의원회 및 교내 위원회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자치기구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대의원회에 참가를 하게 해줬었는데 또 대의원회에 참가하면서 학교에 이런 회의 기구도 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면서 이제 학생자치에 점점 관심을 넓혀갔었어요. (연구참여자 M)

뭐 저희 이거 할래요라고 이제 말만 했다면 저희가 이제 학생자치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학생회를 통해서 대의원회에 안건을 제시하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조금 더 다듬은 다음에 이제 교장선생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나아갔단 말이에요. (연구참여자 I)

연구참여자 M과 I는 대의원회 활동을 통해 안건을 제시하고 다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의원회는 보통 학생자치회라는 집행기구를 견제하는 의회 성격을 지니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와 의회 성격을 통합한 형태를 지니기도 한다.

교복 선정위원회는 필수로 학생, 학부모, 교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 부모와 협업할 수 있는 몇 없는 기회인 것 같아요. 교복 선정 위원회에서 교복 업체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학부모하고 학생이 협의를 하게 되었고 기존에 준비된 정해진 질문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같이 만들고 또 같이 질문해서 더 영양가 있는 면접을 만들었고 또 학생들이 시작을 해서 소감을 말해주면 또 그걸 통해서 외관도 같이 보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의견을 나누고 학생이 가장 편하고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연구참여자 A)

학교에는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구참여자 A는 교복선정위원회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입을 교복에 관한 디자인 검토, 업체 선정 등에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른들과 ‘협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권한이 없는 대상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요구를 들어주기를 부탁하는 ‘건의’의 표현이 아닌,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의 주체 간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만큼 학생을 학교의 주인공으로, 주체로 세우려는 학교 문화와 구성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들, 학교 교직원 분들이 이렇게 예산 이야기하는 것에 같이 학생회 몇 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듣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L)

연구참여자 L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설치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 학칙의 제·개정,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과서 선정 등 학교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에 학생들도 정식 위원이 되어 안전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교내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

## 1.5. 학교 밖 정책 토론회

학생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는 학교 안을 넘어 학교 밖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 세상 바꾸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연말에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인천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그 행사를 하나 진행할 때를 보면 청소년들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물자라든지 아니면 공간 지원, 장소 협력 등을 운영 지원 팀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인천에 있는 00중학교라는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서 그 공간을 빌려서 사용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D는 자체 학생주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이 토론회의 명칭을 자신들의 생각을 토로한다고 하여 토로회로 명명하였다.

인천에서 환경 교육을 진행하려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할지 학생 입장에서 좀 니즈 어떤 요구를 밝히면서 인천의 특색적인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정책 토론회에 낼 수 있을 정도의 체계적인 해결책을 초·중·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의견 나눠서 만들어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장을 또 저와 동료들이 같이 만들어냈다 는 사실이 인상적이었고요.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는 학생들이 주관하여 교육청 단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기후위기생태교육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는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환경 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입장과 요구, 해결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기후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기후생태환경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조망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A는 교육청의 환경교육 담당자를 토론회에 초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였다. 또한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후위기, 우리에게 미래란 없다’ 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널 토론과 그룹별 토론 및 정책 제안을 진행하였다. 해당 토론회에 참가한 교육청 정책 담당자는 토론회 이후 기후생태환경교육 관련 학생참여조직을 출범시키며 학생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에 동참했다.



## 2. 시민성 실천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

### 2.1. 시민의 날 행사

학생자치활동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분야 중 하나가 각종 행사와 캠페인이다. 연구참여자 L은 그 중 좀 더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었다.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진행했었는데요. 1학기 때는 1차 시민의 날, 2학기 때는 2차 시민의 날을 진행했었는데 시민의 날도 마찬가지로 약간 평화와 공존, 역사와 영토, 생태와 환경 이런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략) 시민의 날 그때 이야기하려는 카테고리였던 평화와 공존, 역사와 영토, 생태와 환경 이것과 관련된 분들을 학생회가 직접 섭외를 했어요. 강좌를 해주실 수 있냐 이러면서 섭외를 부탁드려서 여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같이 강좌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참여자 L)

연구참여자 L은 행사명을 시민의 날 행사로 정하고, 평화와 공존, 역사와 영토, 생태와 환경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주제별 강사를 섭외하고 활동자료를 준비하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민의 날 행사의 주요 내용과 활동 사진은 [그림 IV-3]과 같다.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의 날'**

○○고 학생들은 공감과 이해의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시민의 날 행사 주제를 '평화와 공존', '역사와 영토', '생태와 환경', '나눔'으로 정하여 총 43개의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편지 쓰기, '마중, 별이 된 너를 꽃으로 품다' 사람책 콘서트, 마을에 대해 알아보는 오픈 강좌 운영, 마을 그림 작가가 되어 작품 전시회 열기, 영역 주제별 탐구를 할 수 있는 □□학당, 시민 영화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학생들은 평소 접하지 못했던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 가며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다가가는 경험을 통해 시민의 가치를 깊이 있게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 시민의 날 주제별 전시회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람책 콘서트

▲ □□학당에서 '위드코로나'를 주제로 선생님이 되어 수업하는 학생

[그림 IV-3] 시민의 날<sup>6)</sup>

6) 현경희 외(2022). 「학생자치와 사회참여」

## 2.2. 캠페인 활동

캠페인 활동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조운정 외, 2015).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제로 각종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실 캠페인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흔하잖아요. 어느 학교에서도 만약에 학생자치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학교에서도 보통 캠페인은 한두 번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학교에 학교 폭력, 복장 불량, 흡연 등 학생들의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좀 잦아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회와 학생회가 직접 협의를 해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던 게 지금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C는 많은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복장 불량, 흡연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협의한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저희 학생회는 아침 인사를 꼭 진행하거든요. 그때 팜플렛 같은 것을 들고 이제 거기다가 주제를 정해서 직접 만든 팜플렛을 들고 아침에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건데,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이었어요. (연구참여자 K)

연구참여자 K도 교복 바르게 입기의 일환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팜플렛을 직접 만들고, 아침 인사활동 시간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캠페인 활동 시간은 보통 아침맞이라고 하는 등

교 시간,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4행시 행사였어요. 사실 이게 요즘 물론 코로나가 좀 큰 파장을 일으켜 와서 조금 찾아들긴 했지만 그래도 기후 위기가 굉장히 큰 이슈를 몰았고 실제로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 심각함을 느끼고 좀 더 조심스럽게 그거를 좀 인지하면서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행사가 기획이 되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냥 교내 중앙 현관에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는 행사로 이렇게 뭔가 트리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딱 진행을 하는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기후위기 4행시 행사를 진행하자라는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사행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우수 작품은 또 환경단체에서 후원해 준 그런 상품들을 증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또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학생 참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게 해줬던 부분이라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C)

자살 예방 활동에 저는 계속 주력을 두고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처에서 친구가 그런 이제 자해 시도를 했다가 좀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연구참여자 P)

학생들의 캠페인 활동은 보다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를 향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C는 심각한 기후 위기 문제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연구참여자 P는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자살 충동과 자해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참여자 P는 이러한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공감받고 음악으로 위로받는 자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콘서트 형식의 캠페인 활동을 기획하였으며 교육청과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토크콘서트를 실시하였다.



[그림 IV-4] 청소년 자살예방 토크콘서트 포스터<sup>7)</sup>

### 2.3. 학교 축제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했던 학교 축제를 상당히 중요한 활동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학교 축제를 꼽았으며, 연구참여자 J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한 학교 축제를 추진하여 높은 질의 행사로 학생들의 좋은 평을 이끌어 냈다.

7) <https://blog.naver.com/real-coaching/222854224036>



사실 이거는 학생회를 해보신 분들이나 학생회장이셨던 분들은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저는 그나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학교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사례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게 코로나 상황에 막혀서 무산된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는 예산이 좀 많이 생겨서 이 예산을 이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 축제를 좀 즐기고 싶어 하니까 한 번에 그냥 축제에서 소진을 하자 해서 퀄리티가 엄청 높은 축제를 만들어 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축제에 대한 평이 좋아서 거기서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연구참여자 J)

학교 축제가 1부터 한 10까지 있다면 한 9까지는 학생회가 계획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어서 학생회가 할 일도 많고 또 학생회가 할 일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학생회의 존재도 알리고, 그리고 학생자치의 의미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좋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M)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M은 학교 축제가 단순히 학생들이 즐기는 행사를 넘어서 축제 준비 과정의 대부분을 학생자치회가 기획하고 예산 편성 등을 하면서 학생자치회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등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된다고도 하였다.

## 2.4. 다양한 즐거움과 소통의 장

연구참여자들은 특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정형화된 활동이 아니라도 학생들의 즐거움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토론회, 대의원회 이런 딱딱한 활동만 하다 보면 또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거 좀 재미없어하고 좀 지루해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이벤트성 행사 이벤트이면서도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거 그런 걸 저희가 기획을 해서 좀 하고 싶어서 굉장히 공약도 많이 내고 그런 생각도 했고요. e스포츠 대회를 한번 추진을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M)

연구참여자 M은 토론회, 대의원회 같은 활동만 있으면 학생들이 재미없고 지루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 e스포츠(게임) 대회 추진 경험을 나누어주었다.

클로버 라디오라는 사업인데 저희 학교의 상징 트레이드 마크더라고요. 일단 이 사업은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디제이를 중심으로 게스트와 함께 사연 방송이나 정보 방송이나 자유토크 방송 이런 걸 하는데, 저희 학교는 각 주체가 소통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학생회와 학생이 소통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한데 모일 수 있다거나 그런 장이요. (중략) 아침 맛이를 좀 몇 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아침 맛이를 한 게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아침맛이가 얼마나 잘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했는데 진짜 엄청 대성공을 했거든요.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학생자치회가 주최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각 주체 간, 학생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등굣길 아침 맞이 활동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소소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하루의 시작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련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회 같이한 게 그래서 수능 응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토론을 했고, 저도 이제 또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학생들도 대부분 좋은 의견에 금방

금방 동의를 해서 술술 잘 진행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각 반에 포스트잇을 이제 적어가서 이거를 나중에 수능 응원을 할 때 외부에 이젤로 전시를 해두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K)

연구참여자 K는 선배들의 수능일에 맞추어 수능 응원 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개교기념일 행사, 애플 데이(친구에게 사과하는 날)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2.5. 리더십 캠프

연구참여자 학교별로 학생자치 교육 내지 멤버십 강화를 위한 리더십 캠프가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정말 민주시민성이 좀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I)

연구참여자 I는 학생자치회의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교과, 비교과활동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리더십 캠프를 통해 공동체성을 다지고, 관련한 배움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저희 학교가 이제 2021년 때 마지막으로 했던 학생회 활동이 리더십 캠프였어요. 그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들을 불러와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학년 학생 애들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안 친했던 애들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또 오빠들이 고3이 되니까 저희끼리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이 걱정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도 뭔가 언니들  
처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N)

연구참여자 N은 학생자치회 차원에서 실시한 리더십 캠프에서 외부  
강사로부터의 배움, 선배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활동 계획 수립과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지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를 변화시키는 학교 교육과정 참여 활동

#### 3.1. 학생주도형 수업

학교는 어떤 곳일까? 박병기(2020)는 학교는 당시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체제의 부당함과 수구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지를 길러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틀 안에서 정형화된 구성원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그 학교를 변화시키는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며 좁게는 각 교과의 내용과 조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전체적인 계획을 일컫는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참여하며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우선 학교 교육과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수업을 만드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학생회가 다른 학생들이 그거를 선착순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본인들이 직접 ppt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고 활동 같은 것도 수업 후에 같이 수업과 관련된 키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구참여자 L)

연구참여자 L은 학생자치회 차원에서 자신들의 수업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전체 프로젝트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개설하고, 주제에 맞는 수업을 기획, 실시하며 관련 자료를 제작하면서 상호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학생자치와 참여의 영역은 본질적으

로 학생이 원하는 학습을 원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수업 운영에의 참여권과 관련이 깊다.

입학설명회를 해요. 저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이제 학교로 불러서 강당에 모아놓고 이제 설명회를 하고 이제 저희 학교가 과가 4개인데 각 과 이제 도우미를 따라가서 각 과에서 하는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려고 집에 가는 뭔가 그런 시스템인 입학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연구참여자 0)

연구참여자 0은 수업과 학교 입학설명회를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예비 신입생 대상 학교 홍보 및 설명을 하고, 각 학과에서 하는 체험과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 학생자치회, 방송부 등이 협업하였다.

이태권 외(2021)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원격 수업 도입 등의 다소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도 학생주도의 수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학생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는데, 학생 요구에 따라 원격수업의 다양한 클래스를 개설하고 학교장·교감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수업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수업을 돌아보며 학생들이 1학기 수업을 마치고 원격 수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자 직접 나서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교육과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질 제고 등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다음 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였다.



[그림 IV-5] 학생주도형 수업을 위한 논의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강조되면서 수요조사와 수강 신청을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례들이 증가(이주연, 우라미, 2021)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으며 이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 3.2. 학생 생활규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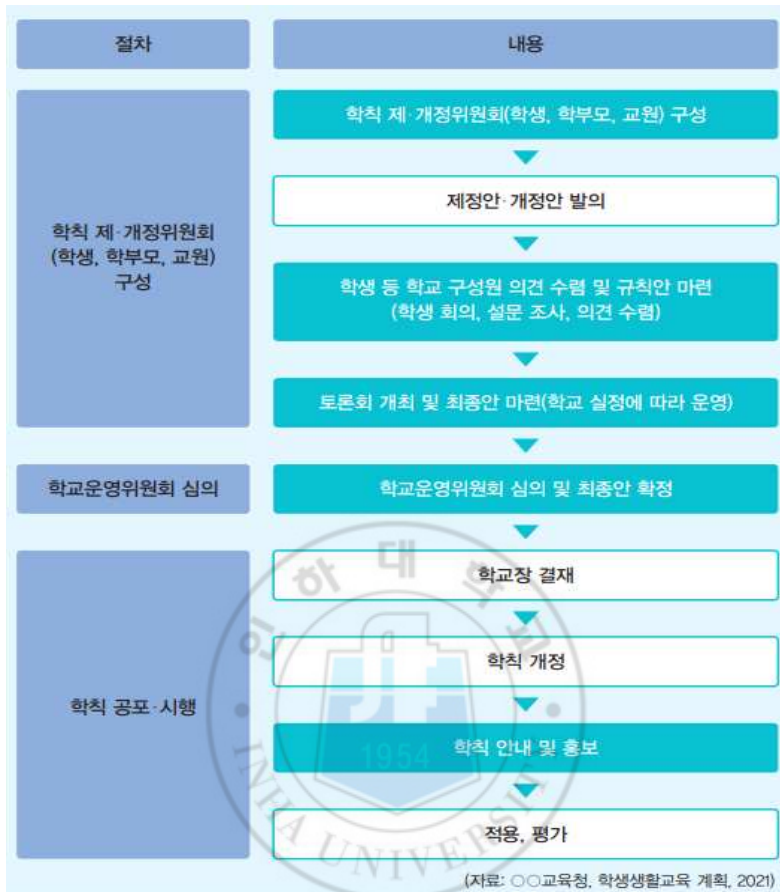
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학교규칙(학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학교규칙 안에 각 영역별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학생 생활규정, 학생회 선거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학생 생활규정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심정보 외(2021)는 민주학교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학생과 교사가 생활지도 내용을 함께 협의하여 정해야 하고, 생활지도의 목적이 학생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 생활협약 개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을 보시면 그냥 학교의 규칙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스피드 토론을 통해서 이 개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략) 이제 기존에 개정이 되었던 생활협약을 기반으로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또는 빼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재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다행히 토론회 진행은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개정의 과정까지 이제 무사히 완료가 되었고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학교규칙을 어른들이 정해주는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개정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의 삶과 관련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학교규칙을 개정하는 데 앞장섰다.





[그림 IV-6]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sup>8)</sup>

### 3.3. 학교 급식 참여

수업이나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학생 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매일 먹고 마시는 학교 급식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는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 급식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영양사의 영양교육과

8) 현경희 외(2022). 「학생자치와 사회참여」

연계되는 교육급식 활동이다. 이렇게 학교 급식은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마주하게 하는 주인으로서의 삶, 다름의 문화와 사고 방식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요섭 외, 2020).

이제 채식데이라는 급식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그 불만들을 보니까 이제 채식이 그냥 싫다는 이유로 급식을 이제 많이 남기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채식데이보다는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들을 알아보면서 여러 나라 문화를 이제 찾아보고 음식을 이제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걸로 바꿨거든요. (중략) 이제 저희도 여러 문화를 보면서 영양이나 그런 거 다 따지면서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번 달에는 저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께 이렇게 저희가 찾아본 것을 다 정리를 해서 부탁드렸거든요. (연구참여자 G)

연구참여자 G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채식급식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로 인해 환경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채식급식일에 도리어 잔반이 더 발생하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G는 학생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고민하였고,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알아보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영양을 동시에 학습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급식에 대한 어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가 나오게 하려는 그런 취지의 행사였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게 아무리 의견을 받고 이게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메뉴라면 이제 실현이 불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정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양선생님과 함께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의견을 꼭 받아봤고요. 이런 메뉴들

을 학교에서 충분히 이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또 영양상으로 문제는 없는지라는 점들을 영양선생님과 꾸준히 계속 소통을 했었고요. 그 결과 이제 한 식단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이제 실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구참여자 F)

연구참여자 F는 학생이 희망하는 급식 메뉴를 반영하는 희망 급식 사업을 추진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를 급식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상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교육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으로 인해 학교 급식에는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또한 단순히 학생들의 자유에 근거한 희망 메뉴만 고집할 경우 자칫 영양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며, 학교 구성원 전체가 먹는 메뉴만큼 공공성 차원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입맛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연구참여자 F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양교사와의 사전 의견 조율과 협업을 통해 바람직한 희망 급식 사례를 만들어갔다. 학생 희망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 영양적 요소를 영양교사와 함께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꾸준히 소통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K지역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학교급식도 학생이 주인이 되는 ‘배움이 있는 급식’ 이어야 한다. 물론 배움이 있으려면 식재료 선정, 레시피 연구 등 모든 단계가 건강해야 하고 정성을 다해 조리를 해야한다. 식단구성부터 조리, 배식까지 메시지를 담고, 그 안에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을 담는 것이 배움밥상이며 학교급식의 미래 모습이자 방향이 될 것이다(김요섭 외, 2020).

### 3.4.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 이행

학교규칙에 따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민주시민성 실천 차원에서 선거를 경험하는 것만 큼이나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 실현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선거 과정에서도 다른 선거들처럼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한다.

선거할 때도 보통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략) 공약 저거 내봤자 지키지도 않는다, 뽑아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자치회가 퇴화되고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M)

연구참여자 M은 공약의 중요성에 비해 낮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었다. 그간 학생들 사이에서 공약이 거의 지켜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 학생자치회가 퇴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바라본 학생회장의 모습은 그다지 이상적이지는 않았다. 많은 이들은 선거 기간 때는 잘하겠다고 다짐해놓고, 당선 후에는 공약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학생회 활동 하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연구참여자 C 기록물)

연구참여자 C 역시 선거 때 공약이 당선 후 이행되지 않는 모습 등 선거 전과 달리 당선 후 변하는 많은 선배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었다.

제 공약으로 하나 골라보자면 저는 이제 00 업 면역력 업이라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랑 시험 기간이 겹쳤을 때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때 당시가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 정말 소량의 포장 간식을 나눠주어서 진행을 했었죠. (연구참여자 K)

이번에 학생회장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학생회 사업 다양화’ 였는데,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설 개편 사업>, <STUDY WITH 학생회!>, <미니 페스티벌>이다. 우리는 학생회를 총 7개의 부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IV -2> OO고등학교 학생회 부서 조직

총무부	학습부	학생 안전부	교육 정보부	예체능부	봉사부	홍보부
-----	-----	--------	--------	------	-----	-----

<시설 개편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학생회만이 아닌 교육 3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와의 만남도 필요하기에 회장단이 담당하기로 했다. <STUDY WITH 학생회!>는 시험 기간마다 학생회와 학생들이 2주 동안 함께 공부하는 사업이기에 학습부의 대표 사업으로 매우 알맞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 <미니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축제가 2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대신한 ‘예술’ 분야 관련 이벤트 사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여 본 사업 권한과 책임은 예체능부에게 위임하였다. 이 외에 다른 부서도 임원들이 각자 부서의 운영 목적과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구참여자 B 기록물)

연구참여자 K는 코로나 시기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면역력을 높이는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연구참여자 B는 학생회 사업 다양화를 공약하며 당선 후 공약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는 정말 학생자치하는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는 학생회 정·부회장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교육청과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을 손꼽았다. 공약 이행 과정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행정적 절차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러 정책 활동 중 학생자치 선거 영상 제작과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학생자치 선거 영상 제작은 학생참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이고, 단순히 촬영만 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촬영 기획안 작성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였다. 때론 밤을 새워가며 함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 영상에는 학생들이 바라는 학급과 리더의 모습, 좋은 공약을 판단하는 기준,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선거 및 후보자 토론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조언 등 학생자치회 선거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있다. (연구참여자 C 기록물)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이행비는 [지역의 모든 중, 고등학교에 학생회장단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공약이행비를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회장단의 선거 공약은 공적인 약속이므로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교육청의 정책 의지 덕분이다. 이는 2018년 민선 3기 교육감 취임 후 열린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sup>9)</sup>에서 제안된 안건을 교육감이 수용한 것으로 2022년 기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이 각 학교에 공약이행비를 지원하면 학교별 학생회장 등은 학생자치회 회의를 거쳐

---

9) 2018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의 1주제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이 제시되었으며 세부 과제로 학생회의 자치예산권 보장에 관한 안건이 채택되었음.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집행 과정을 보조한다.

학생회장단의 공약이행비는 최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8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였고, 2022년 기준 모든 중·고등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금액과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공약이행비의 사용은 큰 틀에서 학생회장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에 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공약 실행 시 학생회장 개인의 생각을 넘어 타 후보 및 대의원회,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학생회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예산 목적에 따라 교사협의회비 사용은 불가하며 학생회 임원만을 위한 활동, 예컨대 간부 수련회나 리더십 캠프, 학생회 점퍼 등의 사용은 제한하여 모든 학생을 위한 예산 사용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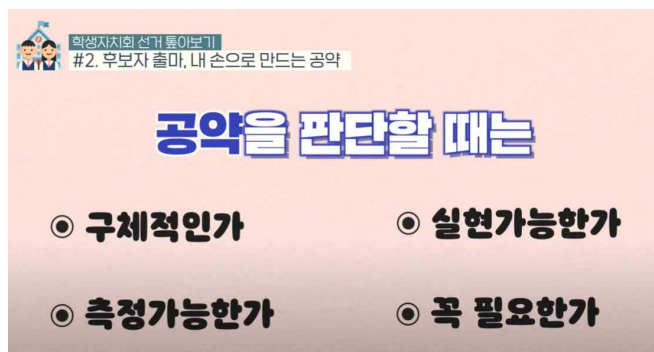
<표 IV-3>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이행비 정책 변화

연도	학교당 지원 금액
2018	전체 고등학교, 학교당 80만원
2019	전체 중·고등학교, 학교당 80만원
2020-2022	전체 중·고등학교, 학교당 200만원
2023(예정)	전체 중·고등학교, 학교당 250-350만원 희망 초등학교, 학교당 100만원



[그림 IV-7] 연구참여자 K의 학교에서  
학생회장 공약이행으로 설치된 학급 옷걸이<sup>10)</sup>

나아가 연구참여자 C는 학생회장단의 공약 이행에 앞서 사전에 후보자들이 좋은 공약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학생참여기구의 동료들과 함께 선거교육 영상을 제작하였다. 선거교육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은 공약의 조건으로 구체적인 공약, 실현 가능한 공약, 측정 가능한 공약, 꼭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823500005363>(2021.6.18.)





[그림 IV-8] 학생자치회 선거 토크쇼 보기 영상<sup>11)</sup>



---

11) <https://www.youtube.com/watch?v=uoq82046QzY>(2021.3.12.)

## 4. 사회를 바꾸는 학교 밖 참여 활동

### 4.1. 학교 간 연합활동

연구참여자들은 개별 학교 안에서의 자치활동을 넘어 다양한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치활동은 마을과 사회를 향하고 있다.

그 친구들도 이제 자기들끼리 학교끼리 연합을 해서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 의미 있는 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자치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학교의 학생 자치사례들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배울 수 있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의미있고 좋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M)

연구참여자 M은 학교 간 연합으로 대회, 이벤트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학교 간 학생자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학교의 자치활동 사례에 대해 배우며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다.

전교회장 특방이 있잖아요. 저희 00시 그 전교회장 특방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려요. 회장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리고, 또 그 질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질문들이 몇십 개가 올라오고, 그 답변들도 또 몇십 개가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집 가는 버스 안에서 뭔가 약간 몽클하다, 뿌듯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진짜 서로 이제 으샤으샤하면서 해보는 거잖아요. 뭔가 학교를 바꿔보려는 정책을 만들려는데 어떠신가요? 라는 걸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이러이러한데 다른 회

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어떻게 바꿔보고 싶나요? 라는 게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뭔가 굉장히 우리나라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약간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요. (연구참여자 0)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공유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O는 SNS를 활용한 질문과 응답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몽클함과 뿌듯함을 넘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에 소속된 약 300여명의 학생들은 5개 지역별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단체 대화방, 오프라인 회의 등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학생참여위원회도 이 교육정책을 직접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관련 교육 관련, 이런 질병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예산학교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학생자치 문화의 형성에 기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자치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M)

연구참여자 M은 지역의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감과의 만남, 교육정책과 예산에 대한 배움 등의 과정에서 학생자치 문화 형성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I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는 I지역의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학생 관련 교육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 4.2. 사회참여활동

연구참여자들은 시민으로서 학교 밖 자치활동을 하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마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사회참여는 공간적으로 가깝게는 학교에서 시작하여 마을, 국가, 세계 등으로 나아가며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사회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동체의 문제를 찾아 알리기, 관련된 이들을 찾아 면담하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정책 결정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 등이 있다. 국가에 민원, 청원,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등에 가입하여 더 적극적인 행동도 가능하다.

단체에서 학교에 있는 학생회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원탁 토론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지난해, 올해 이제 총 두번 정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건 마을교육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을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려면 마을교육이 꼭 학교와 마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학교 안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단체를 운영하면서 배워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했었어요. (연구참여자 P)

우리가 마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이 접경 프로젝트는 기자단 그리고 번역된 동화 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마을의 지도를 제작해서 책을 만드는 행사를 했었고요. (연구참여자 L)

먼저 연구참여자 P는 마을이 갖는 의미를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의 중요성,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마을교육이 갖는 가치,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도 마을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학생이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에 기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연구참여자 L 또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밖 자치활동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다양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품은 공동체는 재정착 난민 청소년, 독거노인, 지역의 안전, 학교 주변의 환경,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국가 유공자 등으로 범위 또한 폭넓다.

이제 재정착 난민 청소년과 함께한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 행사입니다. 00억 인근에 75세 이상 독거노인 40가정에 재정착 난민 청소년과 그리고 지금 한국 청소년들이 짝을 맺어서 직접 모든 가정에 반찬을 전달해드리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연구참여자 C)



[그림 IV-9]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sup>12)</sup>

12) 현경희 외(2022). 「학생자치와 사회참여」

청사진 활동이라고 해서 00시 청소년 진흥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된 활동이었어요.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가 마을 안전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 찾는 활동이랑 그리고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 개선 활동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 학생회가 이런 활동을 실천하고 보고서를 써서 발표하고 그러는 행사였는데요. (중략) 학생들이 흡연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거기서 이제 CCTV를 설치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활동 결과가 아주 좋아서 거기 주민들이랑 상인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장님이 이 활동 처음에 반대하시던 분이 이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돈을 더 투입해서 다른 지역에도 활동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M)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동체와 연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연구참여자 C는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재정착 난민 청소년과 함께 하였다. 특히 재정착 난민 청소년의 어머니가 손수 반찬을 만드는 등 지금까지 도움을 받는 입장을 넘어서 스스로 도움을 주는 주체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 M 또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함께 일을 추진하며 해당 지역을 넘어 타지역까지 품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00도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셨다고 화제가 됐었어서 저희 학교가 이제 피해 주민들 분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시작했던 활동이 아니었는데, 정말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100원, 500원, 1천원 등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금을 모아주어서 저희가 5일 만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학생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 주고 정말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아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 활동은

기부금 모금함부터 이제 돈 모은 기부금을 세는 것까지 다 학생회 주최로 했었거든요. (연구참여자 H)

연구참여자 H는 마을의 공간적 개념을 자신이 속한 동 단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단위를 넘어 타지역의 어려움까지 끌어왔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 거리에서 발생한 산불 문제를 같은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행사를 준비하고, 모금함을 만들고, 기부금을 세어보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학생들이 손수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저희가 그때 광복절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딱 그때가 75주년이었거든요. (중략) 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키트를 다 포장해서 각자 집으로 보내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해서 600명 정도가 참여했고 전달 가능한 퀄리티를 뽑아서 300가구 정도의 00시 유공자 가족분들한테 전달해드렸어요. 그래서 답장도 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P)

연구참여자 P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지역의 유공자 가족들에게 편지를 전해드리고 기념 선물을 집으로 보내주는 등 미처 공공기관의 손이 닿기 어려운 영역까지 스스로 살펴보고 있었다.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던 건데요. 프레임이라는 사회적 기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한 활동이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상점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광고를 수주해서 그 광고를 리어카에 부착하고 그 광고비를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께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을 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분들 그리고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도 저희 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활동이었는데요. (중략) 저희가 2020년에 진행했던 00 프로젝트 중에 인현동 1999 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인현동 화재 참사를 기억하면서 커뮤니티 판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하는 활동인데요. (연구참여자 L)

연구참여자 L은 사회적 기업과 연결하여 동네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에 손수레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광고비를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 직접 광고주와 어르신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지역의 아픔이 있는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사회적 공감을 몸소 실천하였다. 나아가 나눔교육 접경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글을 쓰고 삽화를 그려서 편집한 동화책 10여 종, 수 백부를 제작하여 지역의 아동에게 전달하고 동화구연을 하는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한 과학실험 부스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에 방문하여 키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L은 손수 그림책 편집, 예산안 작성 등을 하였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학교와 마을의 연결을 몸소 실천하며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섰다.

#### 4.3. 자치법규(조례) 제정

연구참여자 B는 지역의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지역에서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여러 교육주체들과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근데 일단 이 인권조례 제정의 프로젝트가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아예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파장이 될 게 필요했어서 사전에 미리 제정을 해놨던 경기도 대표적으로 경기도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 여러 교육청의 조례안을 기반으로 해서 1차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수정하고 내용에 추가할 과정을 거쳐서 각 주체별로 회의를 진행을 하였거든요. 그 주체들이 학생 그리고 교사분들, 학부모분들 그리고 이제 이 제정의 과정에 필요한 내용에 관련된 분들이 각 주체별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연구참여자 B)

학생이 파악하기에 어려운 내용도 많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어요. 내가 제안한 말 한마디가 조례안에 적용되어 제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은 질문도 했었죠. 1년 이상 대면, 비대면으로 참 많은 회의와 검토 과정을 거치며 각 주체별로 의견을 제안하고 수정 작업을 거쳤어요. 점점 틀이 잡히기 시작하였고 그간의 고생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연구참여자 B 기록물)

연구참여자 B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가운데 자기입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I지역의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다.

#### 4.4. 세계를 품는 참여

연구참여자들의 학교 밖 자치활동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5개국, 7개국이 함께하고 있는 국제 비영리 청소년단체이고요. 매년 이렇게 각 많은 파트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뽑아서 함께 활동을 하고 또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 사업 등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고 또 청소년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함께 이어나가면서 교육청과 연관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중략) 저희가 지도 교사나 뭔가 그런 분이 계시지 않고요. 오로지 청소년들의 힘으로 청소년이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이끌어 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연구참여자 C)

최근에는 국내도 국내지만 국외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는 UN이랑 뉴욕 한인회에서 저희 단체랑 좀 이렇게 해서 재외동포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런 활동들 하고 해외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성장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연구참여자 P)

청소년단체 꿈을DREAM은 연구참여자 P가 주축이 되어 만든 국제 비영리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찾고 체험하며 다양한 활동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우리 역사 알기 프로젝트, 청소년 투표권 프로젝트, 각종 공연 기획·운영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지역의 장애인 복지 시설, 교육 시설을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 수학, 국어 알려주기, 책 읽어주기 등 교육 봉사를 하였으며 소외 계층에게 책이나 행사 티켓을 제공하는 기부 행사도 진행하였다(현경희 외, 2022).

## V. 학생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의미

### 1. 개요

학생자치활동 참여 경험은 연구참여자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온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해주고, 폭넓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배움과 성장의 이면에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수와 실패의 경험도 포함된다.

저는 학생자치가 좀 민주주의와 닮아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보고, 이 점을 끌고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학생들이 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도 좋은 역량을 길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

나는 지금 내가 (학생자치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고등학교 3년간 학생자치활동을 하며 얻었던 것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집에는 나오지 않는 도전의 가치와 경청의 자세를 배울 수 없었을 것이고, 공동체의 소중함 또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학생의 주권과 학생들의 즐거운 생활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며 실패도 해보는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주적이고 도전적이며 매사에 핑계보다 방법을 찾을 줄 아는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 학생 자치는 정말 무한한 양분으로 작용했다. (중략) 학생자치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도전 정신, 성실함, 포용력, 배려심, 이타심, 공동체 의식 등 돈을 쥐도 배울 수 없고, 공부한다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경험으로 익힐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A 기록물)

IV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학생자치활동 경험의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II장에서 논의한 시민성 함양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유네스코, 유럽연합, 유럽 의회(2018)에서 제시한 민주주의를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위한 역량은 크게 4가지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가치, 태도, 기능, 지식 및 비판적 이해로 나뉜다. ‘가치’ 범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 다양성, 민주주의 등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있으며 ‘태도’ 범주에서는 타자에 대한 개방성, 시민 의식, 책임감, 자아 효능감, 타문화에 대한 관용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 범주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분석적·비판적 사고 능력, 경청과 관찰 능력, 공감 능력, 유연성과 적응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을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 언어 및 의사소통, 지구촌 세계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이해’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의선(2021)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쳐 민주시민성의 지표를 6가지로 구조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공공선과 공동체 의식, 문화다양성과 공존, 비판적 사고와 리터러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지속가능성과 상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요구되는 역량과 민주시민성 지표를 참고하여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자유주의적 관점의 시민성과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관점의 시민성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율성과 주체성 영역, 공공성 영역, 연대성 영역의 큰 틀 안에서 연구참여자의 민주시민성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3가지 민주시민성 영역별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세부 경험 주제를 도출하였다. 자율성과 주체성 영역에서는 자유와 권리 자기결정권의 보장, 교육활동에서의 주체적·주도적 참

여, 책임 의식 함양이다. 공공성 영역에서는 공공의 이익 추구, 공론장 형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이며 연대성 영역에서는 존중과 협력 중시, 공동체성 구축이다.

끝으로 7가지 경험의 주제 아래 16가지의 경험의 의미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자유와 권리 보장, 자기결정권 행사, 주체로 자리매김, 목표 설정 및 어려움 극복, 끝까지 책임짐, 성찰과 성숙, 학생들의 대변인,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더 큰 공공의 이익 추구, 공론장에서 시민의 역량과 태도 함양, 합리적 의사결정, 다양성 인정, 배려심과 이타심, 상호 존중과 신뢰,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함양,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사회적 연대 등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도식화하면 <표 V-1>과 같다.



<표 V-1> 학생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의미

민주시민성 영역	경험 주제	경험의 의미 주제
자율성과 주체성	자유와 권리· 자기결정권의 보장	학생의 자유와 권리 보장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결정권 행사
	교육활동에서 주체적·주도적 참여	학교에서 주체로 자리매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취
	책임 의식 함양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와 그 무게를 짊어짐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 그리고 성숙
공공성	공공의 이익 추구	또래 학생들의 대변인
		학교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바라봄
	공론장 형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공론장에서 시민의 역량과 태도를 기름
민주적 공동체를 만드는 합리적 의사결정		
연대성	존중과 협력 중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심와 이타심을 기름
		상호 존중을 통한 갈등 해결
		학생자치를 위한 페이스메이커와의 동행
	공동체성 구축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함양
		다문화사회를 이루어가는 사회적 연대 구축

## 2. 자율성과 주체성 영역

### 2.1. 자유와 권리, 자기결정권의 보장

“자율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자유”나 “자기 결정”에 부여된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이념을 담고 있는 용어(최경석, 2014)이며 자치활동에서 학생이 경험한 자유와 권리, 자기결정권 보장 장면은 다음과 같다.

#### 2.1.1. 학생의 자유와 권리 보장

학생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자율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근대의 자율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립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개인들이 각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다스리는 자율은 근대인들이 새로운 인간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김석수, 2010). 안타깝게도 현재 공교육 시스템은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경험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향한 자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스스로의 권리를 향유하고자 하였다.

**모든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다. 활동 시간은 방과 후이고, 평일 또는 토요일에 가능한 시간을 프로젝트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장소는 주로 000이고,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D 기록물)**

연구참여자 D는 청소년 프로젝트의 경험 속에서 기획과 실행, 평가 과정을 자신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에 짜여진 틀에 학생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를 새로운 틀로 재구성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해당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17개 프로젝트를, 2021년에는 19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V-2>, <표 V-3>과 같다.

<표 V-2> 2020년 은하수 프로젝트<sup>13)</sup>

은하수, 별 걸 다 한다		
(주제중심) 선택 프로젝트	별걸다해방	집콕요리
		청소년 창업 공간-무한상상
	별별상상	뜯고 툇기고 맘껏 즐기는 가야금
		MAKE-UP!
		어쩌다 고등학생
		미제
		프리드로우
	별 볼 일 있는 배움	은하수 디자인 특공대
		모든 별이 다니는 학교 야, 너도 재판할 수 있어
	별스타그램	별별코더
		Countdown
	별 아래 온새미로	이제는 바이오 의약품 시대
지구가 아프다?		
별이 빛나는 밤	스페이스	
별 하나의 추억	易史(역사)	
공공 프로젝트	인현동1999	

13) 우현진 외(2022). 학생이 들려주는 자치이야기



〈표 V -3〉 2021년 은하수 프로젝트<sup>14)</sup>

은하수의 별난이들, 별별 이야기를 들려줘	
(주제중심) 선택 프로젝트	페리윙클
	우리 세상 바꾸기
	셋별 투자자 원정대
	하루경영
	별별밴드
	미리내 이야기 관측소
	신신원정대
	별에서 온 녀석들
	뷰티인사이드
	별들의 스페이스
	은하수를 그리다
	요리봐도 조리봐도 요고리얼, 쿠킹교실
	우리들의 성장을 위한 VR
	피규어가 살아있다
	과야호
	과며들다
	Life Science HASA
	VITA 500
공공프로젝트	은하수 메타버스

14) 우현진 외(2022). 학생이 들려주는 자치이야기

칸트에 따르면 초월적 자유의 이념 하에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서 타인(외부)의 지배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입법한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위 할 수 있고, 규범적 차원에서 자기지배적이게 된다(임미원, 2016). 위의 프로젝트에서 보듯 학생들의 이러한 자유는 일종의 질서를 이루며 실천이성에 따라 도덕적인 의무 수행을 가져옴으로써 자유로운 행위 속 윤리적 가치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지점은 학생들의 흥미에 기초한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공프로젝트라는 일종의 사회를 향한 윤리와 책무성, 공공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좋은 학교가 되려면 저는 **학생 인권과 교육권 그리고 학습권 이 세 가지가 보장이 되어야 좋은 학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 인권은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학교에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학교 환경이 괜찮아진다면 교육권과 학습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도가 학생자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자치에 대한 제도를 학생들이 경험을 하면서 (연구참여자 J)

연구참여자 J는 학생의 인권 등 권리가 보장이 될 때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권의식이 함양될 때에만, 청소년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에 인권 존중을 통한 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있기에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 침해 사례, 인권침해 구제의 필요성,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와 방법, 사회의 인권보호 노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권감수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정상우, 2013).

## 2.1.2.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결정권 행사

다양한 자율성의 관념 중 공통적인 자율성의 핵심은 자기 지배, 자기 결정성이며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이다(권형준, 1998; 임미원, 2016).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결정하며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가능하다.

학생자치와 함께하는 학생들은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B)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서 이걸 **내가 약간 이끌어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연구참여자 L)

00중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나는 나의 동료들과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과 그 어떤 것을 하여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겠구나. 정말 안심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두렵지 않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학생자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참여자 B)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좀 네 변화된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I)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입장에 견주었을 때 학생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신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존재이다. 자율적 개인의 동의로 국가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처럼, 학교는 자율적 존재인 학생으로 인해 존재 가치를 지닌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있고, 연구참여자 L은 스스로 주도하는 활동을 해보며 더 자발적으로 이끌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B는 학생자치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참여자 I가 말하듯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는 교육적 분위기와 연결된다. 앞서 자율은 칸트처럼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것에 근거하기도 하고, 밀(J.S. Mill)처럼 자신의 삶에 귀중한 것을 산출할 목적에 기초하고 있기도 하다. 아니면 이 자율은 노직(R. Nozick)처럼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에 기초하고 있기도 하다(Holm, Søren, 1998).

최근 우리 교육계의 전반적인 흐름도 이러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 도입은 그동안 학생 각자의 다양성을 무시해온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김성천 외, 2019: 55)하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주체의 행위주체성을 발휘하는 관점에서 학교자율과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자율과정에서는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기쁨을 누리며, 배움을 통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융합활동, 마을과 연계한 교육활동, 학생주도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하다(임재일 외, 2022).

## 2.2. 교육활동에서 주체적, 주도적 참여

### 2.2.1 학교에서 주체로 자리매김

흔히 학교 교육의 3주체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통칭하는데, 많은 학생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배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여기며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우현진 외, 2022: 10). 심지어 배움의 관점에서만 살펴봐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세상과 미래사회의 넘쳐나는 담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상준, 2019).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학교교육의 주체로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의 중심 존재로, 학교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 학생들의 의견이 가로막히기에는 진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에 **학교의 주체가 되고 학교의 중심이 되는 학생인 만큼 학생은 교사와 학부모가 이를 수 없는 무언가를 무조건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전교생이 강당 무대에 올라서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던 경험과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현장 답사까지 다녀오는 활동을 통해 학생이 학교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박상준(2020)은 이렇게 학생이 행위 주체로서 성찰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미래 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서 학급, 학생회, 동아리, 학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협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성과 역량을 동시에 갖춘, 사회 속의 인간으로 자랄 수 있다(박병기, 2020).

학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제 또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학교 생활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 (연구참여자 E)

당연하지만 이제 학생 또한 학교 안에서 정말 큰 주체의 역할을 한다는 이런 주체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연구참여자 F)

학생자치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른들은 뭔가 이제 옆에서 도움만 서포트만 주고 저희 학생들이 주도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다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있으면 무조건 보호자나 그리고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따르셔야 하는데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뭔가를 움직이고 학생들이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주체가 학생이라서 그런 점이 굉장히 뭔가 저한테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연구참여자 O)

특히 연구참여자 O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갖는 신분적인 한계 속에서 다른 활동과 다르게 학생이 주도하고 주체로 설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매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배경내(2006)는 여전히 지배적인 관점은 보호주의에 머물러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운명과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학생자치는 학생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에서 논의되는 행위주체성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자원, 여타 맥락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야기되며 행위자 자신의 능력의 질이 아닌 행위자의 생태학적 조건에서의 가담의 질로 본다(소경희 외, 2018). 따라서 학생의 주체성을 어떻게 발현하게 할 것인가, 학생을 어떻게 학교의 주체로 세울 것인가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주체성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와 관계가 깊으며 어떠한

교육적, 환경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주체성이 제약되지 않고,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

## 2.2.2.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취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자치활동 중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려움을 겪을 당시 느꼈던 감정을 막막함, 두려움, 걱정, 피하고 싶음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주어진 학생자치활동 매뉴얼의 부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대표적이다.

진짜 너무 막막했고 그냥 심지어는 좀 피하고 싶었어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약간 이 마인드가 정말 강했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학생이랑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연구참여 자 C)

정확히 주어진 매뉴얼도 없었고 오로지 학생들의 의견으로 학생들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두려움밖에 없었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만 하게 되었었는데 이게 다른 구성원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하다가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몇 번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다 보니까 도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연구참여자 A)

학생자치에 정말 관심이 있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경험이 적은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든 진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원하고 싶은 뭔가 아웃풋 뭔가 하나의 목표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학생자치, 학생 참여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방법은 진짜 그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C)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목표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금 하면 할수록 좋은 의견이 나와도 코로나19 때문에 막히고 좋은 의견이 나와도 계속 막히고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힘이 계속 빠지는데 이제 학생들 학생회나 방송부들이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게 그것도 뭔가 저도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 대충 해라고 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노력을 하면서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0)

특히 연구참여자 O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과 이를 동료들과 함께 극복하며 얻은 감동을 말해주었다. 이태권 외(2021)는 코로나19 시기 학교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계 형성 측면에서 비대면 상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상호 유대감 약화, 소외감의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코로나19 초기 1-2년의 공백기는 학교 문화 전수의 방해 요인으로 학생의 자치 경험과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느낀 막막함과 불확실성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시도해 보고, 문제에 부딪히고, 고민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우현진 외, 2022).



## 2.3. 책임 의식 함양

### 2.3.1.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와 그 무게를 짊어짐

학생 주체성 개념은 단순히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수업 활동의 적극적 참여 이상을 의미한다. 나아가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의 몫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자신의 학습 결과가 합리적 행위로 이어지게 할 의무도 가짐을 의미한다(이상은, 2018). 이병환(2015)과 정경수(2013)의 주장처럼 학생자치에서는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태도는 이러한 책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현진 외(2022)는 자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자질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책임감이라고 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 역시 자치활동 과정에서 약속하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이며 활동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와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내가 일을 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한다는 게 약속인 것 같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느낀 것 같고요**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할 때 책임감의 필요성도 많이 느낀 것 같고** (연구참여자 D)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자치활동들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하면서 **책임감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E)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학생 대표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매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자치활동을 했던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H)

연구참여자 A는 학생자치활동이 한 사람이나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학생자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구성원들과의 일종의 약속이며 학생자치가 활성화되었을 때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단체 생활과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치활동을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서 자신이 분배받는 책임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서 자신의 자유가 타인에 의해 방향을 잡아간다는 레비나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이상은, 2018), 자유와 능동성의 주체성을 넘어 책임과 수동성의 주체성(김동규, 2010)을 지향하는 보다 깊이 있는 주체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참여자 E와 H는 학생을 대표하는 대표자 역할로서 갖는 책임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중함, 계획과 실행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진정한 책임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공동체에서 함께 책임을 나누는 가치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다. 자치에는 자발적인 책임이 필요한데 말이다. 자발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들이 모두 주인이 되도록 해보자. 주인은 공동체에서 주권을 가진 사람이다. **주인만이 책임의 무게와 가치를 알 수 있다.** 책임감은 누군가 시켜서 움직일 때 생기지 않는다. 주인이 되어 공동체의 문제가 ‘내 것’이라는 마음이 들 때 자발적인 책임감이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D 기록물)

정의에 대한 요구는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발생한다는 레비나스

의 관점으로(서용순, 2014) 연구참여자 D는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험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3.2.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 그리고 성숙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를 해야 좀 더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연구참여자 B)

솔직히 학생자치활동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느낄 텐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정말 많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공약 관련도 제가 너무 섬세하게 짜지 못해서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연구참여자 K)

연구참여자 B는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을, 연구참여자 C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관한 고민을, 연구참여자 K는 자신이 담당하는 활동과 자치 역량에 관한 내적 고민을 하고 있었다.

가면 갈수록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학생회장으로서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은 끊이질 않았다. 당시의 난 스스로를 객

**관적으로 바라보는 성찰의 능력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다.** (연구참여자 B 기록물)

자치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앉아서 공부하는 수업을 넘어, 직접 움직이며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어른스러운 단어를 쓰는 것도 한몫한다. 일 처리, 업무, 프로젝트 등 회사에서나 쓸법한 단어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 더 어른스럽다고 느껴진다.** (연구참여자 D 기록물)

자치활동은 **끊임없는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이런 고민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중략) 이전과는 좀 더 달리 **성숙한 사람, 성숙한 어른, 좀 더 성숙한 시민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기록물을 통해 성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연구참여자 D는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숙을 만들게 된 원인을 고민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성숙한 시민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자치활동 가운데 경험한 새로운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다양한 역량이 계발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자치활동이 학생을 좀 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며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 됨을 말해주고 있다(정영근, 2007; 조운정 외, 2015).

### 3. 공공성 영역

#### 3.1. 공공의 이익 추구

##### 3.1.1. 또래 학생들의 대변인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활동 소감, 변화와 관련하여 다수 학생들의 대표로 학생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학생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기여한다는 점을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뭔가 **제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그리고 뭔가 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략) 내가 **이런 고생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의견을 뭔가 대표로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원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연구참여자 0)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나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게 된 게 (중략) **학생들이 학교에 굉장히 원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대표로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꼭꼭꼭꼭 참고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안타깝다. 굉장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이 온갖 불만이 있는데도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해 줄 학생이 없으니까 **꼭꼭 참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0)

시민성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 그 과정에서 의식과 제도가 변화하며 성장해온 민주주의의 역사이다(심승환, 2019). 억눌린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 운동은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누군가는 그 선봉에서 구성원의 고통의 무게를 감내해왔다. 어쩌면 학생들이 꼭꼭 참고 살고 있다는 여러 차례의 표현이 연구참여자의 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평소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O는 특히 학생의 인권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목소리를 어딘가에 내비칠 만한 곳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김위정 외(2021)의 K지역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학생의 절반 정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모르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낮아진다고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학생은 권리를 지키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보호자와 교원은 책무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데 연구참여자 O의 문제의식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 3.1.2. 학교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임하며 학교를 좀 더 편한 곳,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 코로나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자치 학생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학교를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한 것들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A)

저는 **학교가 좋은 곳,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 친구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

지 않았습니디. 학교를 싫어하고 학교 아 싫은 존재, 가기 싫은 존재 그리고 학생들이 증오하는 존재까지 되어버려 가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참여자 D)

학교는 여전히 많이 학생들에게 불편하고 가기 싫은 존재로 다가온다. 프레이리의 주장에 비추어보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억압이 있는 사회인 셈이다. 그것은 프레이리가 말한 예금적금식 설명식 교육으로 인한 폐해일수도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계관계 혹은 입시와 성적 중심의 학교교육 구조 때문일 수도 있다. 연구참여자 D는 주변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증오의 존재로 학교가 인식되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상 생활의 온전한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학생자치 차원의 고민과 노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요한 활동인 셈이다.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 그 점을 제가 먼저 나서서 뭔가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좀 몸소 느끼고 나서 제가 이런 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연구참여자 J)

연구참여자 J는 실제 행동을 하면서 학교의 시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막연한 불평불만은 누구나 할 수 있기에, 한발 더 나아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프레이리(1973)가 말한 변혁을 통해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세계의 창조를 보여준 것이며 즉 자신이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음을 알고,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억압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여 그릇된 억압적 사회에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목영해, 2012).

그때는 지금보다 나이도 많이 어렸고 그래서 솔직히 **감투 욕심에 학생자치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중략) **조금이라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혜택을 코로나에 지장 받지 않는 한에서 한번 살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전교 부회장이 출마를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M)

하지만 모든 학생이 처음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로 학생자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 M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한 일차적인 계기를 감투 욕심이라고 표현하였다. 학생자치회의 정·부회장의 경우 동료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된다. 사실 선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 선거 혹은 선거를 통한 대의제는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의 일치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성에서 귀족주의적이기도 하다(백병부 외, 2019). 선출된 대표가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구성원과 분리되어 엘리트화 되는 것은 비단 학생자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선거에서의 당선만큼이나 선거 과정, 선거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1.3.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바라봄

연구참여자들의 공적 이익 추구는 학교 공간을 넘어서 보다 큰 영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정한 학생 주체성은 배우는 사람이 현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한의 세계가 있음에 대해 경의의 태도를 가지고



인류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책임감을 가질 때 성립된다(이상은, 2018).

좀 크게 보면 그 학교 내에서의 자치활동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도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라에서 진행하는 그런 정책들 제도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손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L)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면 그게 직접 적용되고 그 다음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것 같고요. (연구참여자 P)

연구참여자 L은 학교 안에서의 자치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정책과 제도에도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듀이가 강조한 실제로 연결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등장하는 공적 영역(박병기, 2020)을 향한 열망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생의 교육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로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변화를 일구어갈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의 저로서는 학교에서의 학생자치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참여자 K)

궁극적으로는 연구참여자 K의 바람처럼, 학생자치활동은 학교 안에서의 공공의 이익 실현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며 학교라는 삶의 터전에서 이를 시작하여 그 공간적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2. 공론장 형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 3.2.1. 공론장에서 시민의 역량과 태도를 기를

공론장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통해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다(Habermas, 1996).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경험하며 공론장에 나서고 있었다.

학생들 토론회를 마련을 하게 된 게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란 맞물려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많이 나올 때였어 가지고 제 학생회 선생님들과 회의를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의원 회의나 학급회의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학생들을 모시고 얘기를 꼭 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학생 토론회를** 코로나 상황에 맞게 인원을 선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의견을 그렇게 잘 낼까 싶었는데 **좀 다양한 학생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해주셨고** (연구참여자 J)

연구참여자 J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 토론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공론장의 주체에 관하여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모든 민주시민들로, 아렌트는 공적인 것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버마스는 영향 받는 모든 관련자들로 바라보면서 견해의 일치론을 이룬다(주선미, 2010). 학생자치의 공론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대토론회, 학교 구성원이 다 함께 모이는 교육공동체 회의 등이 가능하다. 연구참여자 J의 토론회 결과 학교 운영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특히 학교 화장실에 관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겨울방학 중 화장실 공사가 진행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의견을 나누는 장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많을 텐데 그런 장에서 지켜야 할 태도들**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태도들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의견을 또 효과적으로 피력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A)

이와 같은 공론의 장은 연구참여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태도를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A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지켜야 할 태도와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였다. 공론장은 개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원자론적 인간상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은 타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타자의 정치가 실현되지 않는 영역에서 시민은 이기적인 존재로 머물 뿐이지만, 공동체적 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공론장적 시민은 미래지향적인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주선미, 2010).

### 3.2.2. 민주적 공동체를 만드는 합리적 의사결정

공론장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공간이며, 공공성을 발현하는 공간이다(조한상, 2009). 공론장에서의 공공성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전제로 한다.

공동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면 그 한 사람만 주인이지만, **모두가 회의에 참여하고 논의하면 모두가 주인이 된다.** 모두가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책임

지는 공동체, 즉 민주적인 공동체다. 우리는 민주적인 공동체에서 자처할 때, 자기결정권에 따른 책임감을 경험하며 점점 어른이 되어간다. (중략)

지난 6월에 진행한 서클 프로세스 연수(회의 진행자를 위한 의사결정 서클)를 이수한 청소년들이 소그룹을 나누어 직접 의사결정 회의를 이끌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토론하면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법,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나아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 발짝 물러나 수용하기도 하며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이룰 수 있었다. 전체 수용이라는 결론을 이끌기까지의 과정은 자치를 연습한 순간이었다.** (연구참여자 D 기록물)

**최대한 많은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리더로서 그것을 만드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D는 학생들 사이에서 소수에 의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있다고 하였으며 모두가 주인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때 민주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민주적 공동체에서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이 서클 프로세스 교육을 거쳐 직접 소그룹별 의사결정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합의하는 과정을 이뤄내고, 이후 결론까지 이끌어내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였다.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학생자치회는 민주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었다(조운정 외, 2015). 아울러 연구참여자 C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리더십과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 4. 연대성 영역

### 4.1. 존중과 협력 증시

#### 4.1.1.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심과 이타심을 기쁨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를 둘러싼 환경은 교육 주체의 다양성, 각자의 이해관계와 사고의 다양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학생자치에 있어서는 학생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 간에도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장의선 외(2020)는 문화다양성과 공존을 민주시민성의 주요 지표로 보았으며 타문화에 대한 적응과 수용, 문화에 따른 관점과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 하였고, 연구참여자들 역시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선생님들의 반대나 좀 어떻게 보면 **학생과 선생님 간의 가치관 차이**고 서로 조금 조금씩 배려해 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더 잘 하겠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좀 의견 차이를 좁혀가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요. (연구참여자 C)

**배려심 또 이타심 이런 거를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학생자치라는 게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과 항상 함께 하는데, 또 많은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혼자만의 의견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중략) 이제 나중에 이해하는 법도 배우고 타협하는 법도 배우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불만족스러운 감정에 치우쳐서 그 감정 때문에 일을 처리 못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또 올바른 타협점을 적극

적으로 찾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12시, 11시까지 남아도 힘들지 않았고 (연구참여자 0)

연구참여자 C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가치관 차이를 언급하였으며 각 주체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은 어떤 지도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자치활동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학생 의견에 대해 허용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교사, 동시에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주는 교사를 만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크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바라보는 경험과 시각의 차이가 크기에 아무리 교육적 목적의 지도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고 하는 교사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연구참여자 A는 다양한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배려심과 이타심, 이해하는 법, 타협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O는 학생들을 위한 이타적인 활동이 즐겁게 자치활동을 하게 된 동력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설득을 한다는 게 왜 필요한 건지 또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사회 전체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 이런 **다방면적인 접근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참여자 1)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에 저는 계속 주력을 두고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처에서 친구가 그런 이제 자해 시도를 했다가 좀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연구참여자 P)

연구참여자 I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고려로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와 같은 이타심은 비단 의사소통의 과정의 범위를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다소 깊이있는 학생주도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 4.1.2. 상호 존중을 통한 갈등 해결

연구참여자들은 민주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존중을 배우고 신뢰를 형성하였다.

학생 인권은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학교에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참여자 J)

연구참여자 J는 학생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학생 인권 보장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장의선 외(2020)는 민주시민성의 지표와 역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 인정, 상호 존중, 자아 존중 등을 일컫는다. 나아가 정원규 외(2019)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각각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 즉 참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존중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서의 참정권은 좁은 의미의 투표할 권리를 넘어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정치적 권리이다. 즉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 인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야 한다.

쉽게 말을 하자면 기브앤 테이크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 학생 측에서도 **양보를 하고** 이제 교사분들께서 이제 **양보를 하셔가지고** (연구참여자 B)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감정싸움이라는 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이 감정싸움의 원인이 이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조금 해결해보고자 (중략) **교장선생님과 간담회** 할 때 당시에 도 작년에 비해서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에 이런 **감정 싸움이나 그런 충돌들이 굉장히 줄었다** 이게 학생자치회에 과연 그런 좋은 선례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연구참여자 1)

사실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 많은 유형을 만나는데 그때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갈등이나 그런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B는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간 양보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 I는 학생과 교사 간 감정의 골이 깊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장과의 간담회, 소통의 자리를 가지고 충돌을 줄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구성원의 의견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수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세와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공론장 형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 평화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친 문제 해결, 남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가치 형성이 필요하다(주선미, 2010). 특히 지금 한국의 사회는 갈등의 사회이다. 정치적 사회적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갈등이다(마은중, 2019: 153). 하지만 갈등을 공론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은 객체화되고, 사회는 분열의 길로 치달을 것이다.



### 4.1.3. 학생자치를 위한 페이스메이커와의 동행

단위학교가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될 때, 학교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교의 이념과 교육목표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지며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조윤정 외, 2015). 학생자치 역시 학교자치의 기반 아래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학생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학생자치를 지원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학생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다 통제부터 다 너네가 해야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학생들을 통제하는 부분을 모두 다 학생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소한 선생님들의 무관심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L)

연구참여자 L은 학생자치에 관한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다른 주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힘든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학생자치와 관련한 오해 중 하나가 학생이 원하는 것만 한다는 것과 학생이 모두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극단적 시각이다. 학생자치를 학생이 원하는 것만을 한다고 생각하면 공공성의 결여와 교육의 방임을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학생자치이니 학생이 모두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접근은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

학생 참여 활동에 달리는 사람들이 그 마라톤에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00쌤 처럼 좀 특별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랑 같이 뛰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학생자치, 참여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페이스 메이커가 많아져야지 러너가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옆에서 믿고 의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곳이 많아진다면 지

금보다 더 다양하고 뭔가 좀 색다르고 학생들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학생참여 활동은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라톤처럼 조금 늦게 오래 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제서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거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크게 세상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P)

연구참여자 P는 학생자치와 참여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교사, 학부모가 이 마라톤의 여정에 함께 뛰고 있는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표현하였다. 페이스메이커가 역할을 함께해 줄 때 학생의 자치와 참여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학생자치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등 교육 주체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학생주도성을 넘어 공동의 주도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난 학생자치의 주체는 무조건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생자치의 실현은 절대 학생만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라는 개념이 제대로 확립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학생회의 활동으로만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는 계속 제자리일 게 뻔했다. (연구참여자 B 기록물)

결국 학생자치는 학교자치의 기반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자치는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역량과 민주성이 결합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이태권 외, 2021).

## 4.2. 공동체성 구축

### 4.2.1.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함양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팀워크, 공동체 의식 등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점점 이제 팀워크나 이런 걸 배워가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법이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공동체 의식 이런 걸 더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H)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이다. 학생자치를 통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의 아름다움,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미덕을 배웠다.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법,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예의 있게 비판하는 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의 가치관을 관철하며 가치판단을 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가서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대학교에 가서, 회사에 가서,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때에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할 줄 아는 어린 생각의 어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진심으로 아끼는 어른이 되기 위한 연습을 했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A 기록물)

전교회장 특방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려요. 회장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리고 또 그 질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질문들이 몇십 개가 올라오고 그 답변들도 또 몇 십 개가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집 가는 버스 안에서 뭔가 약간 몽클하다 그런 거나 뿌듯하다 왜냐하면 학생

들이 진짜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해보는 거잖아요. (연구참여자 0)

연구참여자 0는 온라인 상에서 학생회장, 부회장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의 경험을 몽클하고 뿌듯함으로 나타내고 있다. I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자치 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으로 각 학교의 학생회장, 부회장을 동, 서, 남, 북, 강화 5개 지역별로 조직하여 학교 간 소통의 장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공간 아래에서 서로를 사회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연대(정원규 외, 2019)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은 코로나19 시기에도 빛을 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대면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의 난관 앞에서도 학교 구성원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참여 방식을 시도하며 새로운 참여 구조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학생자치활동 시 학생들이 강점을 지닌 SNS를 활용한 다양한 자치활동, 온라인 공간에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태권 외, 2021).

#### 4.2.2. 다문화사회를 이루어가는 사회적 연대 구축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며, 서로를 사회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를 결코 저버릴 수 없다(정원규 외, 2019).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는 작은 사회이며, 지역사회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는 학교 밖을 넘어 마을, 지역, 세계를 향한 참여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 참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외부의 다양한 개인, 기관과 사회적인 연대를 구축하며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반찬 같은 것도 다 재정착 난민 부모님들 그니까 어머니들이 다 직접

**닭뿔 오이지 파리고추 멸치볶음**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만드셔서 이런 요리 교실 활동을 하시면서 배우시고 직접 만든 것을 태반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던 행사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프레임이라는 **사회적 기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참여자 L)

**환경단체에서 후원해 준 그런 상품들을 증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C)

**일반고등학교 세 곳, 특성화 고등학교 한 곳** 그 부평 관내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마을 활동가 분들과 **부평경찰서, 부평구청 이렇게 지자체들 북부교육지원청 이렇게 함께 해서 했었는데**, 주체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느낀 건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협력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P)

연구참여자 C는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재정착 난민 부모님들과의 연대를, 연구참여자 L은 손수레로 폐지를 줍는 지역 어르신의 생계 유지를 돕고자 사회적 기업과의 연대를, 연구참여자 C는 학생들과의 기후위기 공감을 위한 캠페인 과정에서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연구참여자 P는 지역 연합 자치활동을 하면서 타 학교, 마을 활동가를 넘어 경찰서, 구청, 교육지원청 등 지자체와의 연대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연대는 미시적인 것부터 거시적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으며, 다양한 층위의 연대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층위의 연대이든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연대는 항상 존중과 자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원규 외, 2019).

## 5. 소결

본 장에서는 중등학생의 자치활동 경험을 민주시민성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크게 자율성과 주체성 영역, 공공성 영역, 연대성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와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많은 고민과 성찰 속에 성숙을 이루어갔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는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살아가는 학생들을 대변하고, 학교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공공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공론장을 만들고 참여하며 시민적 역량과 태도를 기르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이러한 경험은 존중과 협력을 중시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심과 이타심을 기르고 상호 존중과 갈등 해결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이 과정은 교사, 학부모 등 다른 교육주체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갖게 되었으며 공동체성은 학교 밖 사회를 향한 연대로까지 이어졌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성의 주요 영역을 자율성과 주체성, 공공성, 연대성을 구분하였지만, 이 영역이 반드시 독립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떠한 경험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으며 통합적,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Ⅵ.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중등학생의 자치활동 경험에 주목하여 학생의 눈높이에서 자치활동의 경험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성 차원에서 자치활동 실천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연구 문제를 ‘중등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의 양상은 어떠한가?’와 ‘학생자치활동 참여 과정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안팎에서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등학생 1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자치활동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먼저 연구참여자가 자치활동에 참여한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173쪽의 학생자치 기록물을 탐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별 각각 2-3회에 걸친 그룹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보조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II장에서는 민주시민성과 다양한 시민성의 개념, 자유주의적 시민성,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적 시민성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중등학생의 특성과 더불어 학생자치의 구조적 기반이 되는 학교자치,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의 학생자치, 법과 제도 및 정책과 교육과정 상에서 펼쳐지는 학생자치에 관한 이론을 다루었다. 아울러 비판이론과 주체성, 프락시스의 관점에서 민주시민성과 자치활동을 논하였다. 이 같은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IV장에서는 중등학생의 자치활동 경험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V장에서는 자치활동 실천 경험의 의미를 민주시민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자치활동의 경험 주제는 크

게 4가지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 ‘시민성 실천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 ‘학교를 변화시키는 학교 교육과정 참여 활동’, ‘사회를 바꾸는 학교 밖 참여 활동’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험으로는 교내 학생 토론회, 공동체 비전 세우기, 학교장과의 간담회, 대의원회 및 교내 위원회, 학교 밖 정책 토론회, 시민의 날 행사, 캠페인 활동, 학교 축제, 다양한 즐거움과 소통의 장, 리더십 캠프, 학생주도형 수업, 학생 생활규정 개정, 학교 급식 참여, 학생회 정·부회장의 공약 이행, 학교 간 연합활동, 사회참여 활동, 자치법규(조례) 제정, 세계를 품는 참여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자율성과 주체성, 공공성, 연대성의 민주시민성 영역에서 자유와 권리·자기결정권의 보장, 교육활동에서 주체적·주도적 참여, 책임 의식 함양, 공공의 이익 추구, 공론장 형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존중과 협력 중시, 공동체성 구축 등 7가지 경험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의미 주제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 보장,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결정권 행사, 학교에서 주체로 자리매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취,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와 그 무게를 짊어짐,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 그리고 성숙, 또래 학생들의 대변인, 학교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바라봄, 공론장에서 시민의 역량과 태도를 기를, 민주적 공동체를 만드는 합리적 의사결정,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심과 이타심을 기를,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갈등 해결, 학생자치를 위한 페이스메이커와의 동행,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함양, 다문화사회를 이루어가는 사회적 연대 구축으로 나타났다.



## 2. 논의 및 제언

급격한 시대 변화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우리 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과 관련이 깊다. 앞서 살펴본 김위정(2016), 박희진(2019)의 연구에서 학생자치활동이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유익한 것임을 공유하였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시민성 실천을 위한 주요한 도구이자 방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의 인식에 동의하는 가운데, 학생자치와 관련한 참여자의 경험을 살펴보는 질적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의 관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 안팎에서 자치활동을 실천하는 중등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질적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학생자치와 관련한 박사논문은 주로 학생자치법정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이마저도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질적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자치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중등학생의 구체적인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학생이 느끼는 자치활동의 어려움, 바람, 개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의 자치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활동의 양상을 유형화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범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연구자마다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자치활동을 학생회 선거나 행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자치가 실현되는 다양한 영역을 발견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자치활동의 기준 내지 지향점으로서의 성찰 지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앞서 제시한 학생자치활동의 경험을 민주시민성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자율성과 주체성, 공공성, 연대성 측면에서 그 의미를 도출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자유주의적 시민성,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핵심 요소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연결 지은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의 자율, 공공, 연대의 가치들을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자율성의 실천이 공공성과 연대성 영역과 조화되면서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 지향의 가치를 구현하는 책임 있는 주체성을 발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본 연구는 중등학생의 자치활동 참여 경험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지역, 국가 수준 교육과정 단위에서 보다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수업과 평가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수업과 평가에서 큰 효능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교육과정에 학생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연계하여 공교육의 책임교육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되는 고교학점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일상의 수업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들이 성취평가가 아닌, 석차 등급제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어 고교학점제 안착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생 중심 수업,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의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수립, 교사별 교육과정 실행 시 제도적인 학생 참여

도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 도출된 자치활동 양상별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학생 참여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한 폭만큼 성장하고 있었다. 이에 학생의 희망과 수준을 고려한 폭넓은 참여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구결과 도출된 자치활동 경험의 양상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과 학교가 어느 영역의 자치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진단하면서 체계적인 자치활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경험은 특히 민주시민성 개념의 확장에 따른 세계시민성 차원의 활동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제주도교육청 소속 S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기투합하여 중학교 지역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였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회의, 현장조사, 탐방을 하며 제주어와 제주 바다, 해녀의 삶을 다루면서 제주의 전통, 제주의 환경과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지역 교과서를 만들었다. 학생은 교과서로 배우는 존재라는 인식을 넘어, 학생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기존에 확인된 학생자치의 영역 이외에도 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발굴하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내해줄 수 있는 플랫폼과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자치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학생 눈높이에서 자치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시 플랫폼과 안내자료 등이 필요하다. 어려움을 공유하고, 조언을 나누며 자료를 누적·공유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 될 수

도 있고, 학생이 직접 쓰고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학생자치 안내서가 될 수도 있다. 또는 학생자치를 키워드로 하는 학교별 플랫폼 간의 연결망도 가능하다. 영국의 크릭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시민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교육 과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기에(박병기, 2020), 학생자치를 다루는 시민교육의 과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I시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시민과 사회참여」, 고등학교 「학생자치와 사회참여」 인정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인정교과서의 확산과 더불어 학교별 선택과목 채택 등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넷째, 학생자치를 위한 법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감과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 있었다. I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이 학생들의 의견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실제 교육정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여러 장애물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학생이 교육감 선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다. 교육감은 지역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만 16세인 고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학생들부터 교육감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시·도 교육청 정책 실행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이 펼쳐지고 학생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깊이 있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에게만 정치적 권한을 주었을 때의 부작용, 학생에게 주어지는 권리만큼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안전장치 부재 등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이러한 지적은 타당성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논의, 적극적인 선거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에 학

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선언적 내용이나 임의 조항에 그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학교마다 학생자치를 지원하는 편차가 큰 상황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급에 따라, 어떤 학교에서 생활하는지에 따라, 어떤 학교장과 지도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학생자치의 지원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공통의 지원 여건이 보장되는 법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한 지점이다.

다섯째,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주체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학생자치는 학생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교육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주체들이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교육공동체 회의, 3주체 회의 등 공론의 장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과감한 권한 위임과 공동의 학교 운영 노력, 교육주체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 각 주체들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학교장이 되어야 하는지, 학생자치를 위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행정기관의 학생자치 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진정성을 보이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 추진 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자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살펴본 바, 중앙정부인 교육부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문받는 공식 기구 내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9월, 교육부는 직제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조직명을 개편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이전 정부

지우기 차원에서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학생자치, 학교자치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학생자치와 관계가 밀접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과 밀접한 사항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학생자치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에 순응하는 일꾼을 기르는 것으로 정책이 회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자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생자치 부서 위주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뿐 교육청 전 부서에 걸친 의견 수렴 시스템은 부족한 편이다. 이에 교육청 정책 사업부서별로 학생교육과 관련한 직접적인 일을 추진하는 경우 추진 과정에서 학생의 자문을 받고,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해서 영역별 학생 자문단을 둘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감의 정책 자문단 형식으로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도 있다.

일련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등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질적연구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초등학교급에서도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기에 초등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수준에서의 자치활동은 덜 알려져 있는 편이며, 연령 특성상 학생에 비해 교사 중심의 연구가 많은 상황이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자치활동 관련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넘어 현상학, 문화기술지,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한 다양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특정 학교급,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넘어 학생의 여러 시기에 걸친 접근, 종단연구 차원에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다문화사회의 도래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세계

시민교육 차원의 학생자치와 참여를 살펴보는 연구도 요구된다. 예컨대 이주 배경 학생, 다문화 밀집 학교 등의 상황에서의 자치활동의 양상과 의미,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이 증폭되고 있는 다문화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한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이를 구현하는 주춧돌과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택(2016). 연대의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 경남: 경상대학교출판부.
- 강수택(2019). 연대하는 인간, 호모 솔리다리우스. 서울: 지식의날개.
- 강영안(2015). 타인의 얼굴: Levinas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경기도교육청(2020). 현장지원단과 함께하는 전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정책 포럼 자료집. 경기도교육청.
- 고미영(2013).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 교육기본법(2022). 법률 제18456호.
- 교육부(201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부(2019). 학생 시민 성장 안내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021). 경기도조례 제7208호.
- 김동규(2010). “자유와 능동성을 넘어서=레비나스의 주체 물음에서 수동성과 말함”. 철학, 0(105), 47-74.
- 김민, 김정주(2020). 미래교육을 위한 초·중·고 청소년 세대 특성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상욱(1996).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석수(2010). 자율성의 운명과 우리의 현실: 서구 자율성 이론과 연계하여. 사회와 철학, 19(0), 101-128.
- 김선욱(2001). 한나 아렌트의 판단이론과 의사소통적 합리성. 사회와 철학, 0(2), 255-278.
- 김성열(2021). 지방교육자치시대, 학교장의 역할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1(5), 3-25.
- 김성천, 김요섭, 김인엽, 김진화, 김혁동, 오수정, 이경아, 이영희, 임재



- 일, 홍섭근(2019). **학교자치2**. 서울: 테크빌교육.
- 김성천, 민일홍, 정미라(2019).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서울: 맘에드림.
- 김영순(2010).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 역량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18, 33-59.
- 김영순(2018). **공유된 미래 만들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김영순 외(201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제**. 경기: 북코리아.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순, 장은영, 김진석, 장은숙, 김창아, 안진숙, 정지현, 윤영, 최승은, 정소민(2020). **다문화사회와 리터러시 이해**. 경기: (주)박이정.
- 김영순(2021).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 경기: (주)박이정.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V**.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요섭, 구슬이, 구연희, 김영자, 이동배, 임재일, 정옥희, 홍섭근(2020). **학생자치 학생주권시대를 열다**. 서울: 테크빌교육
- 김용(2019). **학교자율운영 2.0**. 서울: 살림터.
- 김은영(2018). OECD교육 2030 : **미래교육과 역량**. 서울교육 231호.
- 김위정(2016).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1), 179-203.
- 김위정, 김종우, 이가람(2021). **2021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주선(2009). **법교육 방법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고등학교에서의 강의식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전남.

- 김진숙, 장연진(2017). 아동·청소년의 아동권리인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교-. **디지털융복합연구**, 15(6), 83-96.
- 김진철, 최용호(2018). 「**세종자치학교**」 현장적용방안 및 정책 제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김현숙, 김희재, 이미식, 송교성(2020). 초·중·고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영향요인. **한국초등교육**, 31(3), 165-180.
- 김형근(2018). **신자유주의에서 신공화주의로: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효숙, 이경화(2018).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 형성에 관한 실험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9(2), 543-572.
- 곽준혁(2008a). 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아세아연구**, 51(1), 133-163.
- 곽준혁(2008b).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 **대한정치학회보**, 16(2), 127-149.
- 곽혜송, 홍미화(2017).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유형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24(1), 11-30.
- 관계부처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관계부처합동.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2019). 광주광역시조례 제5149호.
- 권은선(2019).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비판적 문식성 실천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사례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권형준(1998). 자기결정권. **고시연구**, 25(11), 28-38.
- 노영란(2002). 시민성과 시민윤리. **철학연구**, 83(-), 187-209.
- 대한민국헌법(1988). 헌법 제10호.
- 마은중(2019). 헤르바르트(Herbart)의 정치 교육 고찰, **교육철학연구**, 41(4), 153-170.
- 목영해(2012). 프레이리와 랑시에르의 해방교육론 비교. **교육철학연구**, 34(4), 43-65.

- 민수빈, 박해인, 김이경(2019). 중학교 학생의 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6(3), 117-139.
- 박병기(2020). **우리 시민교육의 새로운 좌표**. 서울: 씨아이알.
- 박상준(2019). **사회과 교재연구 및 교수법: 4차 산업혁명, 수업 패러다임을 바꾸다**(제2판). 경기: 교육과학사.
- 박상준(2020). 학생주도성(student agency)에 기초한 교육의 혁신 방안: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765-787.
- 박성준(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박수정, 정바울(2020). **학교자치 진단 지표 및 진단 도구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박새롬(2017). 사회과 정치참여 수업의 의미와 구성 방안 - 능동적 시민성 교육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4), 113-136.
- 박은주(2019). 한나 아렌트, '판단' 개념의 교육적 의의. **교육사상연구**, 33(4), 1-25.
- 박희진(2019). 학급자치활동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7(2), 89-118.
- 배경내(2006).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회. 마당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백병부, 이수광, 이병희, 남미자, 장은주, 이형빈(2019). **학교 민주주의의 개념과 실행조건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삼성여자고등학교(2022). **지역교과서 함께 제주 노닥이기**. 삼성여자고등학교.
- 서용순(2014). 데리다와 Levinas의 반(反)형이상학적 주체이론에서의 정치적 주체성. **사회와 철학**, 28(0), 323-346.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a). **교복입은 시민 학생자치활동**. 서울특별시교육

- 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b). **학교민주시민교육포럼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설규주, 정원규(2020).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제안과 적용. **시민교육연구**, 52(2), 229-260.
- 성신명(2020). **TSL 가족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소경희, 최유리(2018). 학교 중심 교육 개혁 맥락에서 교사의 실천 이해: ‘교사 행위주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6(1), 91-112.
- 송샘, 이재목(2018) 다문화사회 이주민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 시민교육. **아태연구**, 25(1), 61-91.
- 송훈섭(2022). **플레이리의 프락시스와 지리교육: 혁신학교에서의 지리수업을 사례로**.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 송지훈(2018).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 심성보(2015). 시민교육에 대한 시민적 공화주의 입장과 대안적 학교 모델의 모색. **교육철학연구**, 37(1), 43-65.
- 심성보(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 북멘토.
- 심성보, 장경훈, 김혜자, 허진만, 정원규, 이하나(2021). **민주학교의 탄생**. 서울: 생각정원.
- 심승환(2019).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관한 교육철학적 고찰: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교육사상연구**, 33(4), 47-84.
- 심익섭(2001). 시민참여와 민주시민교육. **한독사회과학논총**, 11(2), 51-79.
- 오영수, 박상은(2019).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다문화시민성 비교

- 분석. **지역사회연구**, 27(1), 145-165.
- 오필우, 신수범, 김명렬(2006). 학생임원 선출 방법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0(1), 119-128.
- 우현진, 김지원, 김태형, 유현호, 이아선, 이현우(2022). **학생이 들려주는 자치이야기**. 서울: 부크크.
- 유은혜 의원실(2013). **중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의 현실진단과 개선방안 모색**(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유은혜 의원실.
- 육혜원(2015).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사유”와 “판단”. **대한정치학연구**, 23(1), 1-21.
- 윤수재, 이민호, 채종현(2008).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경기: 법문사.
- 이경윤(2017). 전교어린이회 선거활동 참여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581-600.
- 이기우(1998).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3), 165-188.
- 이광원(2019).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사회교육연구**, 26(3), 43-58.
- 이도영(2019). 창의적 체험활동 경험에 대한 중학생 인식 연구-자율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7(2), 107-136.
- 이대성(2012). 학생자치 법정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표준 모델 개발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19(1), 63-82.
- 이명균(2004). 학교자치론에 기초한 교사회학부모회 법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16(2), 185-212.
- 이병환(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교육정책네트워크 현장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이상은(2018).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담론에 나타난 학생주체성의 재개념화. **교육철학**, 68(0), 119-145.

- 이운발(2005). 교육과정 개정기에 따른 사회과 목표로서의 ‘민주 시민’에 대한 의미와 그 시사점. **사회과 교육**, 44(2), 83-105.
- 이주연, 우라미(2021).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양상 및 쟁점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4(4), 59-83.
- 이중섭, 모상현(2012).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281-308.
- 이지혜(2017). 학생자치법정 토의 토론 수업 과정에서의 사회과 핵심역량. **사회과수업연구**, 5(1), 35-53.
- 이진희(2003). 현대 사회의 민주 시민성에 대한 고찰. **윤리연구**, 53(1), 101-124.
- 이충민, 김원진(2017). 학생회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55-80.
- 이태권, 김영자, 김요섭, 민수빈, 임재일(2021). **코로나19 이후 학교자치 강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하준(2021). 아렌트의 시민개념과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동서철학연구**, -(101), 457-479.
- 이혜진(2020). 지역사회협력 청소년자치배움터에 참여한 청소년의 학습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의정부 몽실학교의 프로젝트 기반 학생자치배움 과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1177-1197.
- 인천광역시교육청(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연수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학생 시민을 위한 학생자치 안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인천광역시교육청(2022a). **2022학년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인

- 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인천광역시교육청(2022b). **2022학년도 학생자치 활성화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인천광역시교육청(2022c).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안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2021). 인천광역시조례 제 6566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20). 인천광역시조례 제6378호.
- 임미원(2016). 윤리적 개념으로서의 자율성 -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3(3), 1-21.
- 임성철(2013). 한 체육교사의 학생주도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1), 53-64.
- 임재일, 박은영, 박주훈, 김택현(2022). 학교자율과정 적용 양상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 방향 논의: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3), 75-104.
- 장기덕, 박재황(2011). Glasser의 리드형 관리에 기초한 초등학교 학급회의 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12(1), 177-189.
- 장원순(2007). 초등사회과교육에서 정치적 판단력 증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접근. **사회과교육**, 46(1), 107-125.
- 장의선(2021). 미래형 교육을 위한 민주시민성의 주요 지표와 세부 역량. **기전문화연구**, 42(1), 147-172.
- 장의선, 김기철, 박진용, 박태준, 이인태, 강대현(2020). **학교 수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건희, 김윤나, 최윤진(2010). 청소년자치활동의 실태 및 현황 분석. **청소년학연구**, 17(1), 53-83.

- 정경수(2013). **실질적 학생자치와 학생의 학교공동체 참여. 학교 민주주의 구조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127-151. 경기도교육청.
- 정구영, 김대식(2020). 초·중등학교 학생자치활동의 변천 과정. **교육사학연구**, 30(1), 59-98.
- 정상우(2013).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의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6(1), 147-169.
- 정상우, 강은영(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교육법적 관점에서. **교육법학연구**, 31(3), 95-123.
- 정소민, 김영순(2015). 시민교육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프락시스 개념 탐구. **시민교육연구**, 47(4), 241-271.
- 정순원(2011). 학생자치법정 확대를 위한 제도화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4(3), 107-125.
- 정옥분(2009). **청년발달의 이해(2판)**. 서울: 지학사.
- 정영근(2007). 학생존재 이해에 대한 교육철학적 접근. **교육철학연구**, 38, 187-206.
- 정영수(1990). 비판이론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3, 37-50.
- 정영수(1995). **인간교육의 탐구**. 서울: 동문사.
- 정원규(2018).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과제와 추진원칙**. 2018 학교민주 시민교육 포럼 자료집. 한겨레신문사.
- 정원규, 김형철, 박인혜, 설규주, 오재길(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연구**.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 정현주, 정은주, 김경숙(2013). 중학생 예술동아리 자치활동 수혜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인성변화 자각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4), 397-416.
- 조성남, 이현주, 주영주, 김나영(2011).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경기: 도서



출판 그린.

조영남(2017).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교육과정 변천 연구. **통합교육과정연구**, 11(1), 93-114.

조운정, 박미희, 박진아, 이지영(2015). 경기도 학생자치 실태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일수(2011). 자유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82(1), 1-24.

조한상(2009).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조형, 윤혜린, 양민석, 양난주, 최진, 이은희(2007). **여성주의 시티즌십의 모색**.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주선미(2010). 공론장 이론을 통한 시민성 연구. **사회과교육**, 49(2), 171-183.

청소년 기본법(2020). 법률 제17285호.

청소년 보호법(2022). 법률 제18550호.

초·중등교육법(2022). 법률 제18298호.

추병완(2010).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문화 감응 교수 방법 개발. **교육과정평가연구**, 13(2), 103-122.

최경석(2014). 자율성 존중의 원칙: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윤리학**, 3(2), 43-64.

최현(2010). **한국사회와 시민성 -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하송아, 박세훈(2020). 중학교 교사의 학생자치 지도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교육종합연구**, 18(2), 63-88.

하승우(2014). **공공성**. 서울: 비타 악티바.

하희수, 김희백(2019). 학생 중심의 과학 학습 공동체 이해를 위한 행위 주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1), 101-113.

한성찬(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의 역할**.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포럼 자료집.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

허상훈(2019). **청소년의 특성 및 체험활동 참여와 도덕적 감수성에 관한  
연구 : Rest. J. K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  
학교, 경북.

허은정, 윤지영(2019).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학생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학생, 학부모 및 학교 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7(3),  
63-85.

허종렬, 박형근, 이지혜(2012). 미국 청소년자치법정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자치법정의 활용  
가능성을 위한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5(3), 107-127.

현경희, 김재우, 김요섭, 이상기, 김희성, 박대훈(2022). **학생자치와 사회  
참여.** 서울: (주)해냄에듀.

홍성철(2009). **비판이론의 교육학적 의의 고찰** -사회과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관련하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충남.

황미영(2020). 중·고등학생의 학급임원 경험 유형과 특성: 학생자치활동  
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2(3), 271-300.

황부남(2017).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교육 실행에 관한 질적연  
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황여정(2018). 학생자치활동이 중고생의 학교교육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6(2), 669-699.

Andersson. E.(2018). The school as a public space for democratic  
experiences: Formal student participation and its political  
characteristics. *Education,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1-16.

Arendt, H.(1978). *The Life of Mind*. volume one, by Harcourt, Inc.

- Arnold, J., & Clarke, D. J.(2014). What is 'agency' ? Perspectives in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6(5), 735-754.
- Bandura, A.(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anks, J. A.(2007).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2n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Bogdan, R. C., & Biklen, K. S.(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MA: Allyn & Bacon.
- Bogdan, R. C., & Biklen, K. S.(2015).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5th ed). 조정수 역(2015). **교육의 질적연구방법론의 기초(제5판)**. 서울: 경문사.
- Clandinin, D. & Connelly, F.(1999).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역(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경험과 사례**. 경기: 교육과학사.
- Creswell, J. W.(2007).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2010).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Dul, J., & Hak, T.(2008). 안동윤, 이희수 역(2017). **직접해보는 사례연구**. 서울: 피와이메이트.
- Eric Liu & Nick Hanauer(2011). 김문주 역(2017). **민주주의의 정원**. 경기: 웅진 지식하우스.
- Fiske,A.P(2004). "Social Relations : Relational Models Theory 2.0." pp. 3-25. Relational Models Theory: a Comtemporary Overview, edited by Haslam, N. Mahwah,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 Freire, Paulo(1973). 채광석 역(1979). **교육과 의식화**. 서울: 새발.
- Freire, Paulo(1998). 사람대사람 역(2007). **자유의 교육학**. 서울: 아침이

슬.

- Greene, Maxine(1985). “The Role of Education in Democracy.”  
Educational Horizons 63(Special Issue): 3-9.
- Habermas, Jürgen(1996/1992).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ans, by  
William Rehg.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atch, J. A.(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 진영  
은 역(2008). **교육상황에서 질적연구 수행하기**. 서울: 학지사.
- Holm, S ø ren(1998). “Autonomy,” in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edited by Ruth Chadwick, Vol.1, San Diego: Academic  
Press.
- Irving Seidman(2006). 박혜준, 이승연 역(2009).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 John Dewey(1916). 이홍우 역(2007).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철학개론-**.  
경기: 교육과학사.
- John Dewey(1938). 엄태동 역(2001).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서울: 박영  
스토리.
- Leadbeater, C.(2017). Student Agency. in OECD, Education  
2030-Conceptual learning Framework: Background Papers.  
2017.10
- Maxwell, J. A.(2005). 이명선, 김춘미, 고문희 역(2009). **질적연구설계:  
상호작용적접근**. 경기: 군자출판사.
- Merriam, S. B.(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chael Apple & James Beane(2007). 강희룡 역(2015). **마이클 애플의  
민주학교**. 서울: 살림터.

- Mouffe, C.(1992).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political community.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Pluralism, citizenship, community, 225-239.
- OECD(2019).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 note: Student Agency for 2030. Paris, FR: OECD.
- Oxfam(2015).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 Retrieved from <https://www.oxfam.org.uk/education/resources/education-for-global-citizenship-a-guide-for-schools>
- Peters, Michael A(2008). Citizenship in the Age of Globalization, global-e Twenty-first Century Global Dynamics, Friday, February 15
- Philip Pettit(1996). 곽준혁 역(2012). **신공화주의**. 경기: 나남출판사.
- Reath, Andrews(1998). “Ethical Autonomy,” Edward Craig(ed.) Encyclopedia of 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 Rudolf Steiner(1894). 박규현, 황윤영 역(2020). **자유의 철학**. 서울: 수신제.
- Stake, R. E.(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Tapal, A., Oren, E., Dar, R., & Eitam, B.(2017). The sense of agency scale: A measure of consciously perceived control over one’s mind, body, and the immediate environment. *Frontiers in Psychology*, 8, 1552.
- UNESCO, EU and the Council of Europe(2018).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Background Paper 2, Europe and North America Education 2030 consultation, Strasbourg, 24 October 2018
- Van Maanen, J.(1979). “Prefa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pp.520-526.

Webster, L., & Mertova, P. (2007).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Oxon, Canada: Routledge

Yin, R. K.(2005). 신경식, 서아영 역(2011).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 ABSTRACT

##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Practice from the Student Autonomy Activities in Secondary School

Yoseob Kim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February,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terns of student autonomy activities in which second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 in and out of school, and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practice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student autonomy activities. In this process, we tried to understand in depth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f research participants surrounding student autonomy, and based on this, we tried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for revitalizing student autonomy.

The research problems set up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The first is, 'What is the pattern of student autonomy activities involving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the second is,

‘What is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practice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student autonomy activities?’

To this end,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aspects and meanings of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practice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autonomous activities by applying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Therefore, this researcher selected 16 second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utonomous activities in schools and education offices in Area I as research participants. First, we looked at various field texts for qualitative case studies, an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re is a 173-page self-published work made by research participants by recording their activities themselves from August 2021 to February 2022. In addition, based on the semi-structured pre-questionnai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group from January to February 2022, and in this process, two or three times interviews were conducted per research participant.

This study developed theoretical discussions surrounding democratic citizenship, various citizenship discourse and student autonomy to find the answers to the above-mentioned research questions. First of all, democratic citizenship can be explained as the quality of democratic citizens, and the discuss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was getting thicker with various citizenship discussions in the flow of multicultural and globalization. This citizenship discussion was largely developed in the great flow of liberal citizenship, communalism and republican citizenship. First, the discussion on autonomy and agency from the perspective of liberal citizenship, and publicity and solidar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alism and republican citizenship were explored more deeply. Also, it suggested the need for mutual complement and harmony between the two citizenship, political correct judgment, and discussions at the level of global citizenship in the multicultural era. Regarding student autonom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student autonomy in the structure of unit school autonomy, student autonomy at the level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laws, systems, policies, and curriculum for realizing student autonomy in the school field were discussed.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ism theory, agency, and praxis, autonomous activities into democratic citizenship practice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theoretical lenses, the following aspects of the experience were found in relation to research problems. Second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 in autonomous activities was largely found to be meetings and forum for democratic decision-making, events and campaigns for citizenship practice, school curriculum participation activities that change schools, and out-of-school participation activities that change society. In detail, they were going through a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by participating in school student debates, community vision establishment, meetings with school principals, delegates' meetings and school committees, and out-of-school policy discussions. In terms of events and campaigns, it was found that they participated in Citizens' Day events, various campaigns, school festivals, a venue for fun and communication, and leadership camps. In the school curriculum, the school was changed by student-led classes, revising student life regulations, school meals, and fulfilling the pledges of the student council's. In addition, beyond the unit school, they were exerting concrete influence on villages and society by experiencing joint activities between school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enacting local laws and ordinances, and embracing the world.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practical experience shown in the autonomy activitie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citizenship, the meaning was found largely in the area of autonomy, agency, publicity, and

solidarity. In the area of autonomy, guarantee of students' freedom and rights, self-determination exercise, positioned as the main player in school, achievement of own goals overcoming difficulties, bearing the weight and attitude of responsibility until the end, maturity achieved through constant thought and reflection were derived. In the area of publicity, in order to pursue the public interest, they were making schools a better place as spokesperson for their peers and looking at the greater public interest. Also, it made rational decisions to create and participate in public forums, develop competencies and attitudes as citizens, and create a democratic community. In the area of solidarity, diversity was recognized, consideration and altruism were cultivated, and conflicts were resolved through mutual respect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And all of this process was done not only through students but also through the exercise of co-leadership with other subjects who become helper. Finally, in the experience of autonomy activities, a sense of community and belonging were cultivated, and social solidarity was established to form a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activate student autonomy, it was suggested to guarantee more practical student participation at school, regional, and national level curriculum units, to ensure systematic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students by type of autonomous activity experience and to explore new areas of student participation methods, to educate actively with a platform that can practically solve and guide students' difficulties, strengthen the legal foundation for student autonomy and to prepare a place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o promote sincere policies towar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level, to prepare a system for listening to student opinions in the process of education policies.

## <부록 1>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 <연구 설명문-청소년용>

- 연구제목: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연구책임자: 김요섭(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대학원생, 010-0000-0000)

#### • 무엇을 연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로, 여러분께 이번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구는 여러분의 학생자치활동 경험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 •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연구 참여는 2021년 11월 - 2022년 7월 사이에 여러분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총 20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를 허락하게 되면, 참여자를 5인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면담을 실시하게 됩니다(학생참여위원회 5명, 학생자치 네트워크 5명, 중학교 학생자치회 5명,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5명).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문서에 질문의 답을 적은 후, 이를 기초로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ZOOM) 방법으로 그룹별 2시간 정도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필요 시 추가 개별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학생자치 참여 계기, 참여 활동 내용, 학생자치 방해 요소 및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면담 내용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녹음 후 기록할 예정이며 연구결과에는 개인정보(학교, 이름 등)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녹음파일은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며 암호화하여 보관되기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목적 달성 후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됩니다.

-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혜택이 있나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에 참여하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면담이 끝나는대로 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며 연구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도 예정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연구에 참여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에 참여하여 나누어주신 학생자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은 논문 형태로 작성되어 향후 학생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나쁜 점은 없지만, 질문지에 대한 답을 작성(약 1시간)하고 면담하는 과정(약 2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야 합니다.

- 연구 참여는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연구의 참가는 여러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처음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도 중간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만둘 경우 연구 자료는 보관하되, 연구결과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참가를 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제 비밀은 어떻게 지켜지나요?

연구를 위해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이용되며,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번호로 정보가 관리되어 이야기를 한 사람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선생님들이 회의나 논문을 통해 연구에 대해 발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이름, 학교, 나이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이번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번 연구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구책임자 김요섭(010-0000-0000)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가하는 여러분들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32-860-9158)'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 연구제목: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나는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들에 관하여 담당 연구자 선생님께서  
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연구 기간 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나의 학교 생활을 포함해 다른 어떠한 나쁜 일도  
생기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담당 연구자 선  
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나는 자유로운 뜻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합니다.

■ 연구책임자

이름: \_\_\_\_\_ 서명: \_\_\_\_\_ 날짜: 20 년 월 일

■ 동의서 설명자

이름: \_\_\_\_\_ 서명: \_\_\_\_\_ 날짜: 20 년 월 일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참여 학생: 성명: \_\_\_\_\_ 서명: \_\_\_\_\_ 날짜: 20 년 월 일

연구 책임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날짜: 20 년 월 일

<연구 설명문-부모용>

- 연구제목: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연구자: 김요섭(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대학원생, 010-0000-0000)

- 본 설명문 내용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와 내용은 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로써,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이번 연구는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자치 네트워크, 학교 학생자치회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 경험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 예상 참여기간

연구기간은 2021년 11월 - 2022년 7월 중 학생의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질문지 작성(1시간), 그룹별 면담(2시간), 필요시 추가 면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략의 참여자 수

연구참여자는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자치 네트워크와 같은 교육청 공식 기구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 추천을 받은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 교사 추천을 받은 자로 총 2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활동 그룹별로 5인 1개 그룹으로 면담이 진행됩니다.

- 연구절차

우선 연구책임자(김요섭)가 부모님과 해당 자녀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받습니다. 연구에 동의하신 후에는 그룹별로 학생들과 약속 날짜를 잡고 학생자치 경험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

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ZOOM) 방식을 활용하되, 지침이 개선될 경우 대면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연구에 수반 될 수 있는 위험과 이로온 점

특별한 위험은 예상되지 않으며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그룹별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학생자치 관련 경험의 공감대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는 학생자치 관련 정책 개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여 학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면담이 종료된 후 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발적 참여 및 철회의 자유

본 연구에의 참여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결정됩니다. 귀하 및 귀하의 자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참여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불리함도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 중단시 해당 자료는 연구자료로 보관하되 연구결과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이 연구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연구자 측에 의해 연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 비밀보장

면담 내용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녹음 후 기록할 예정이며 연구결과에는 개인정보(학교, 이름 등)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녹음파일은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며 암호화하여 보관되기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목적 달성 후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됩니다. 다만 학문적인 목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 없이, 집단 정보로 분석 처리되어 발표됩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전산파일은 보안시스템이 적용된 책임연구자의 연구실 컴퓨터에, 서식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캐비닛이 보관되고, 연구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연구원만이 접근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또한, 연구 종료 3년후에 모두 파기됩니다.



- 문의사항

귀하는 본 연구와 관련된 잠재적 혹은 알려진 위험에 관한 모든 질문에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연구책임자 김요섭(010-0000-0000)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전화번호: 032-860-915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부모용>

• 연구제목: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은 담당연구자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였고 적절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자녀는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본인의 자녀가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 및 본인의 자녀는 연구 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자녀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의 자녀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인 및 본인의 자녀의 연구 참여를 요청하여 동의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부모): 성명: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연구 책임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록2> 면담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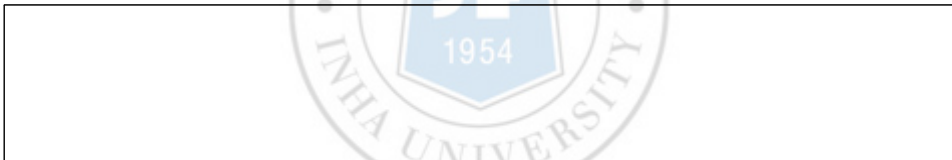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면담 질문지는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면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면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 년 월

연구책임자 김요섭(010-0000-0000)

1.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학생자치가 활성화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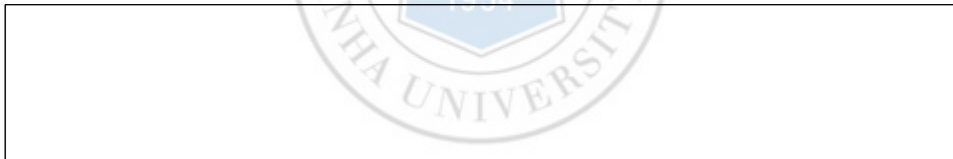
3.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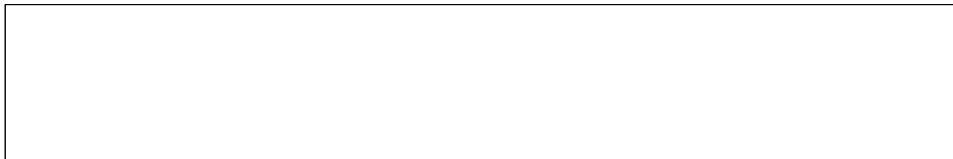
4.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여러 가지 선택 가능)

(예시)

- ① 학급, 학교 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진행했던 사례
- ② 학교의 여러 위원회(교복, 급식, 생활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학생 의견을 학교에 반영한 사례
- ③ 수업 방법,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 결정을 한 사례
- ④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이 노력했던 사례
- ⑤ 교육청, 시·군·구청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 사례
- ⑥ 지역사회(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참여활동 참여 사례
- ⑦ 그 외 의미 있는 사례



5-1.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교사와 협력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5-2.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학부모와 협력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5-3.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6. 코로나19 시기에 학생자치와 학생참여를 위해 노력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7.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8. 학생자치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지원(교육청, 학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9.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여러 바쁜 상황 중에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